회령혁명사적지



두
만
강
팔 을 천
오산덕표식비
망양나루
빨래터
박우물
발방아간터
김정숙동지혁명사적관
회령고향집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동상
회령혁명사적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어린시절에 걸으신 로정
〔주체11(1922).봄－주체18(1929).6〕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타오취엔리－신파지구에서 진행하신 혁명활동 주요로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조국광복회 신갈파지회와 신파지구 당소조를 무어
주시고 비밀사업장소로 리용하신 석전양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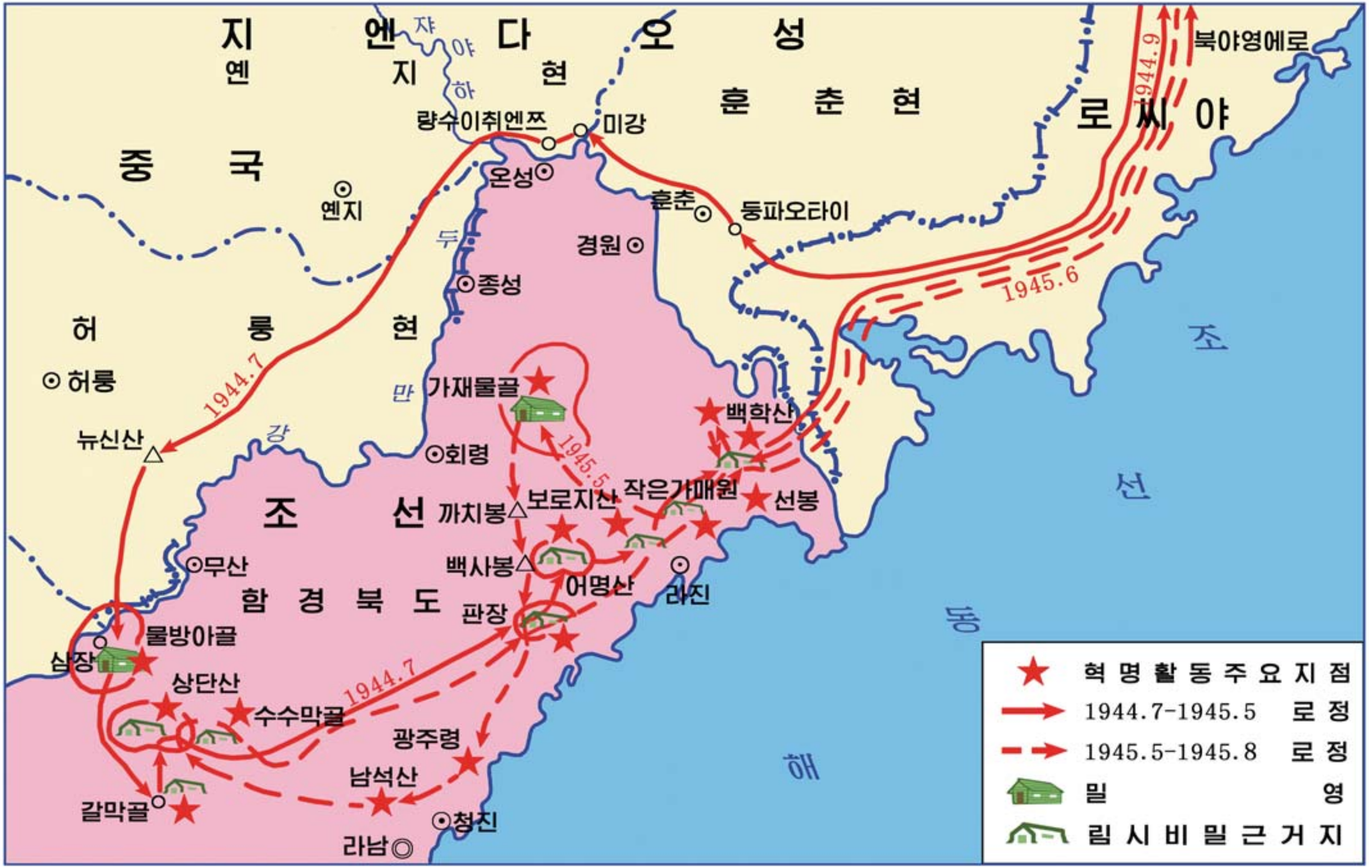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지하정치공작에 리용하신 광선사진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쓰신 구호나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진행하신 혁명활동 주요로정 〔주체33(1944). 7－주체34(194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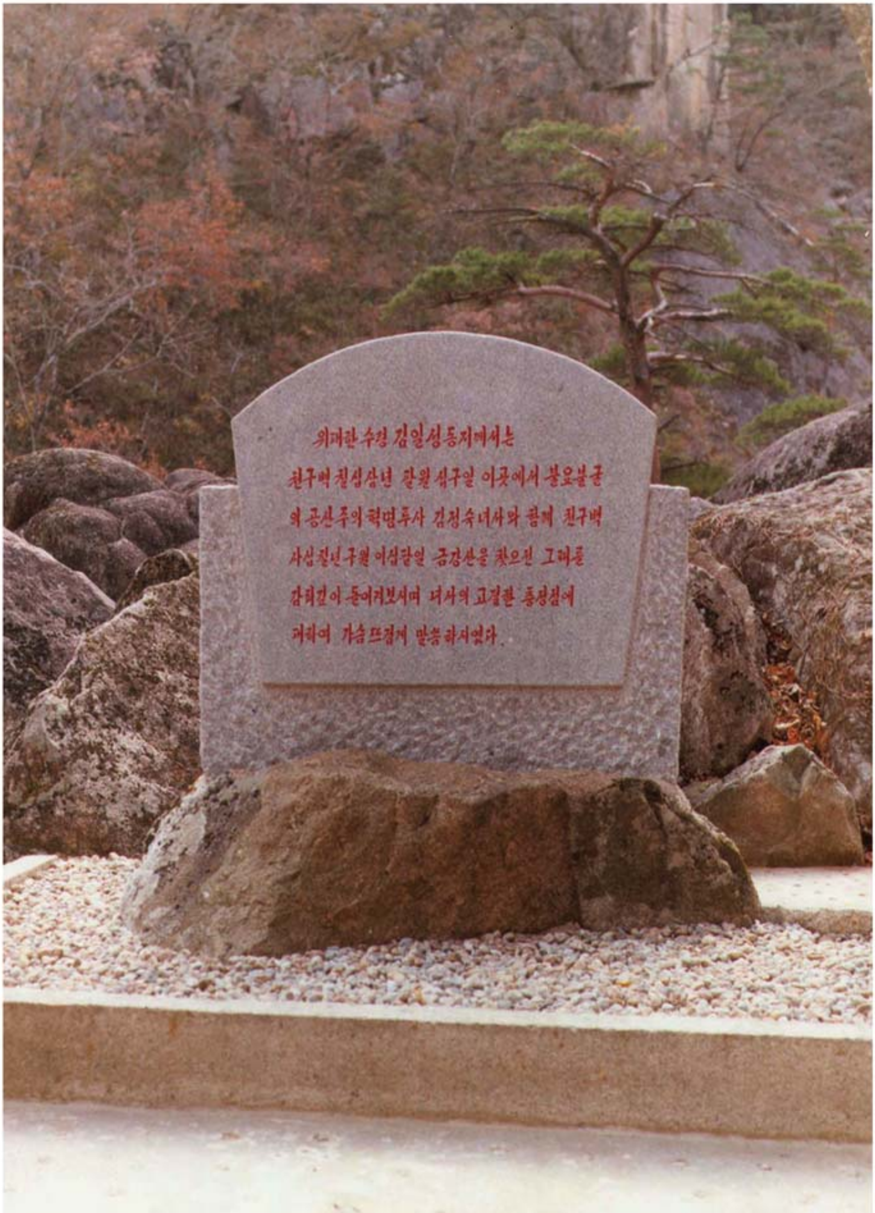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청진일대에서 활동하실 때 계시던 집(해방동숙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지어드리신 꽃이불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6(1947)년 9월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금강산을 찾으시였던 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신 곳 (회상대)

머 리 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한평생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위대한 혁명가이시다.

김정숙어머님의 혁명력사는 가장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시고 어버이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받들어나가신 참된 혁명전사의 력사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승리와 새 조국건설을 위한 사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전설적녀성영웅, 탁월한 정치활동가의 빛나는 력사이며 한없이 소탈하고 검박한 인민적품성으로 한생을 수놓으신 위대한 혁명가의 력사이다.

그리고 조선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키우시여 주체혁명위업 계승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의 력사이다.

김정숙어머님의 혁명력사는 그 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 크나큰 감화력으로 하여 청소년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참된 교과서로 된다.

모든 학생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고 어머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움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차 례

제1장.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혁명투쟁 참가, 아동단 및 공청사업 지도, 유격구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 전개

〔주체6(1917). 12－주체24(1935). 9〕

1.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6(1917)년 1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시 오산덕동의 극빈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였다.

어머님의 일가는 원래 함경북도 어느 바다가마을에서 사시다가 할아버님대에 회령으로 옮겨오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가정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였다.

김정숙어머님의 할아버님께서는 일찌기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농민봉기에 참가하여 싸우시였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였다.

아버님이신 김춘산선생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독립운동에 나서시여 굴함없이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이시였다.

어머님이신 오씨녀사께서는 반일독립운동에 나서신 남편의 사업을 적극 도우시였으며 자제분들을 대바르고 훌륭하게 키우신분이시였다.

오라버님이신 김기준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신 열렬한 혁명투사이시였다.

동생 김기송선생님께서도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다 생을 마치신 슬기롭고 용감한 소년혁명가이시였다.

이처럼 김정숙어머님의 일가분들은 일제와 지주놈들을 끝없이 미워하시였으며 나라를 찾기 위한 싸움에 한몸바쳐 나서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가정은 또한 소작살이로 어렵게 살면서도 정의를 사랑하고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참된 가정이였다.

어머님의 일가분들은 회령에서 지주놈의 땅을 얻어 소작살이를 하시였다. 일가분들모두가 그처럼 부지런히 일하시였으나 일제와 지주놈때문에 생활은 쪼들려만 갔다. 어머님께서 탄생하실무렵에는 빚값으로 지주놈에게 소작지를 빼앗기고 오막살이초가집마저 헐리워 남의 집 웃방에서 곁방살이를 해야 하였다.

일가분들은 이처럼 어렵게 사시면서도 이웃간에 화목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면서 도와주는 고결한 인품을 지니고계시였다. 의리를 지킬줄 알고 옳은것을 귀중히 여기며 원쑤들과는 끝까지 맞서싸우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이러한 가정은 어머님에게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계급적원쑤를 끝없이 미워하는 마음과 강의한 의지와 숭고한 풍모를 키워준 터전으로 되였다.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부모님들과 오라버님의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 쓰라린 생활체험과 야학에서의 꾸준한 학습,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일찍부터 부모님들과 오라버님의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였다.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뛰여나신 김정숙어머님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린시절 아버님으로부터 일제를 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내용이 담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였다.

그때 아버님께서는《맑은 아침의 나라》,《금은보화 가득찬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우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였다.

그리고 봉건통치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투쟁과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의 죄행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일제는 우리 인민을 못살게 구는 제일 나쁜 놈들이라는것을 깊이 깨달으시였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키우시였다.

특히 어데 가서나 고향을 잊지 말고 조선을 잊지 말며 조선을 위해 싸우라고 하신 아버님의 유언을 가슴깊이 새기시며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설 굳은 결심을 다지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의 인품에서 큰 영향을 받으시며 고결한 품성을 키워나가시였다.

어머님이신 오씨녀사께서는 아버님의 애국투쟁을 적극 도와드리시였으며 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시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계시였다.

어느해인가 오래동안 집을 나서시였던 아버님께서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집에 오신 일이 있었다.

그때 오씨녀사께서는 깊숙이 보관해두시였던 기장쌀을 꺼내여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의 밥을 지으려고 하시였다.

그러자 김정숙어머님의 언니는 놀라운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시였다.

오씨녀사께서는 자제분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사람이란 마음이 고와야 한다. 그분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내대고 싸우는데 우리가 무얼 아끼겠니. 그분들을 위해서는 아낄것이 없단다.》

오씨녀사의 말씀은 자제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오씨녀사께서는 남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보다 더 가슴아파하시며 힘껏 도우시였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가족이 집에서 자고가게 되였는데 그 집 아주머니는 다 꿰진 치마를 입고있었다.

오씨녀사께서는 그 녀인을 불쌍히 여기시여 다음날 아침 자신의 베치마를 입혀보내시였다.

언니는 단 한벌밖에 없는 치마를 입혀보냈으니 어머니는 어쩌나 하고 걱정하시였다. 그러자 오씨녀사께서는 《귀한건 사람

의 마음이란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은 곱게 먹구 살아야 한단다. 돈이나 재물이 무엇이겠니. 그까짓거야 모두 써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마음은 쓰면 쓸수록 빛이 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오씨녀사께서는 무슨 일에서나 성실하고 근면하시였으며 겸손하고 소박하시였다.

오씨녀사께서 지니신 이 모든 성품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 그대로 이어졌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오라버님이신 김기준선생님으로부터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받으시였다.

그때 김기준선생님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일에 모든것을 다 하시였으며 자기 가정이나 개인의 리익보다 혁명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시였다.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 유격구로 떠나시려는데 일제《토벌대》놈들이 갑자기 마을에 달려들었다.

어머님께서는 재빨리 일제놈들의 《토벌》에 엄마를 잃은 젖먹이 조카애를 안고 산으로 치달아오르시였다.

이때 김기준선생님께서 숨가쁘게 뒤쫓아오시여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네가 아직두 혁명할 각오가 덜 되였구나. 혁명에 나섰으면 먼저 혁명부터 생각해야지 자기 집 식구나 생각해서야 어떻게 혁명을 하겠니! 어서 가거라. 집걱정은 말구… 잘 싸워라!》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오라버님의 이 말씀에서 자신보다 혁명을 먼저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을 깨달으시였으며 여기에서 큰 감동을 받으시였다.

그리고 혁명에 한몸바칠 의지를 가다듬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린시절 나라잃은 우리 민족이 당하는 설음과 고통을 겪는 과정을 통하여 착취사회에 대한 항거의 정신을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머님은 어려서부터 소작살이를 하면서 나라잃은 설음과 고통을 너무도 많이 당하시였습니다. 어머님처럼 세상풍파를 다 겪으신분은 아마 드물것입니다.》

어머님께서 탄생하시여 자라시던 시기는 일제놈들이 우리 나라를 빼앗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던 시기였다.

어머님의 가정은 회령에서 소작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날에는 지주놈의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땅까지 떼우게 되였다.

회령에서 더는 살수 없게 된 어머님의 가정은 주체11(1922)년 봄에 정든 고향을 떠나 중국 동북지방의 옌지(연길)현 베이거우(북구)로 옮겨갔다.

베이거우로 이사한 후에도 농사를 이악하게 지었으나 일제놈들과 지주놈들때문에 생활은 펴이지 못하고 가정에는 불행만이 겹쳐들었다.

독립운동에 나서시였던 아버님께서는 고문으로 입은 상처와 그 후에 입은 동상으로 몸을 움직일수 없게 되시였다. 언니는 빚값으로 지주집에 끌려가고 이에 맞서 지주놈과 싸우시던 오라버님은 다리를 크게 상하시였다.

이 원한은 김정숙어머님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기였다.

간악한 지주놈은 이렇게 하고도 성차지 않아 얼마 안되는 땅마저 떼였다.

어머님의 가정은 베이거우에서도 살수 없어 주체17(1928)년 봄에는 바다오거우(8도구) 시산리(서산리)로, 그 이듬해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옌지현 푸옌동(부암동) 샤촌(하촌)마을로 이사하였다.

푸옌동에 오신 김정숙어머님의 가정은 이곳에서도 소작살이를 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오씨녀사께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시였다.

그리하여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식솔많은 한가정의 안팎일을 도맡아하지 않으면 안되시였다.

그러던 1930년 가을 동생이 되놀이에 쓸 쌀을 마련하려고 소작밭에서 수수 몇이삭을 잘라온 일이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지주놈은 제 아들놈까지 끌고와 수수이삭을 잘라왔다고 행패질을 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수수 몇이삭때문에 이해 가을 지주집에 끌려가 추운 겨울에도 연자방아를 돌리시면서 피눈물나는 머슴살이를 하시였다.

이처럼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부모님을 따라 회령으로부터 옌지현의 여러곳으로 자리를 옮겨사시면서 나라잃은 우리 민족의 설음과 고통을 가슴아프게 느끼시였다. 그리고 불공평한 이 세상과는 끝까지 싸워야 하겠다는 결심도 굳히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야학에 다니시면서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더욱 키워나가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암동은 나에게 있어서 잊을수 없는 고장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지주의 머슴살이도 해보았으며 야학에 다니면서 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여 일제가 우리 나라를 빼앗았으며 일제침략자들을 우리 나라에서 내쫓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해야 가난한 조선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1930년 여름부터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들에는 마을마다 야학이 세워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하여 파견하신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세워진것이였다.

그리하여 푸옌동에도 야학이 세워지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마을에 야학이 생기자 선참으로 나가시였으며 정열적으로 배우시였다. 그 과정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혁명을 이끄신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온 민족이 우러르는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을 거듭 외워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칠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가시였다.

야학에서 혁명의 뜻을 키워가시던 어머님께서는 혁명조직의 지도를 받으시며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러던 주체20(1931)년 봄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혁명조직으로부터 동네집들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격문을 뿌릴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혁명조직이 준 그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이튿날 아침 온 푸옌동이 법석 끓었다.

동네마당과 길들에 격문이 뿌려지고 지주집대문짝에도 큼직한 격문이 나붙었다.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악질지주들을 타도할데 대한 격문은 마을사람들을 일제와 지주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첫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통신련락과 같은 임무를 스스로 맡아 수행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혁명조직이 주는 임무를 수행해나가시는 과정에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사상의지와 품격을 훌륭히 갖추어나가시였다.

소작살이—농사지을 땅이 전혀 없거나 적어서 일정한 량의 수확물을 소작료로 물것을 약속하고 지주의 땅을 얻어 농사지으며 사는것.

되놀이—낟알을 얼마씩 모아 음식을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한집에 모여서 재미나는 이야기, 노래와 춤을 되받아넘기면서 즐기던 놀이.

격문—어떤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투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선동적인 글.

2. 혁명투쟁 참가,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교육교양, 공청사업 지도

혁명투쟁 참가

1931년에 들어서면서 만저우(만주)를 강점하려는 일제의 야망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대중적인 투쟁은 폭력적형태로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세하에서 무장투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두만강연안으로 활동무대를 옮기시였다. 그러시고는 광범한 군중을 혁명대오에 묶어세우시였다.

푸옌동에도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여러가지 명칭을 가진 혁명조직들이 무어졌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20(1931)년 9월 12일 소년선봉대에 입대하시였다.

소년선봉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어주신 청소년들의 반군사조직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소년선봉대에 입대하시면서 엄숙히 맹세하시였다.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혁명전사된 영예를 안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순간까지 굳세게 싸울것을 조직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소년선봉대의 입대, 이것은 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영광스러운 투쟁대오에 참가하는 뜻깊은 첫걸음이였다. 이때부터 김정숙어머님의 혁명투쟁이 시작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소년선봉대에 입대하여 조직생활과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의 앞장에 서시였다.

어머님께서 소년선봉대에 입대하신지 며칠이 지난 9월 18일 일제는 만저우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그리고는 《후방의 안전》을 위한다는 구실밑에 우리 인민에 대한 《토벌》을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단련육성하고 확대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정치공작원들의 지도밑에 푸옌동 혁명조직에서도 만저우땅을 침략한 일제놈들의 속심을 폭로하고 대중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집회를 조직하였다.

그때 김정숙어머님께서도 혁명조직의 위임을 받고 군중들앞에 나서시여 선동연설을 하시였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여러분!

…

일제와 악질지주는 우리의 철천의 원쑤입니다.

원쑤를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편안하게 살수 없습니다.

모두다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하나와 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군중들은 어머님의 연설에 격동되여 주먹을 쳐들고 일제와 악질지주놈들을 타도하자고 웨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20(1931)년 가을에 있은 추수투쟁때에도 대중의 앞장에 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둥만(동만)의 넓은 지역에서는 일제와 악질지주들을 반대하는 추수투쟁이 벌어졌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추수투쟁이 벌어지던 첫 시기부터 푸옌동 농민들을 악질적인 지주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그때 선전대에 망라되여 활동하시였는데 농민들속에 3,7제와 4,6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어느날 어머님께서는 녀인들과 함께 조가을을 하시였다.

쉴참이 되자 어머님께서는 조 열단을 날라다 석단과 일곱단으로 나누어 세워놓고 그중 석단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요 석단이 리지주네 몫이구요, 나머지 일곱단은 우리 작인들 몫이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자는 3,7젭니다.》

어머님께서는 다시 조단을 여섯단과 넉단으로 갈라놓고 4,6제도 설명해주시였다. 마을녀인들은 그제서야 3,7제나 4,6제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그 좋은 3,7제를 왜 안하겠는가고 하면서 저마다 찬성해나섰다.

《그러니 우리는 꼭 이겨야 해요. 이기자면 힘을 단합해야 해요. 놈들이 아무리 날친다 해도 우리 농민들이 한사람같이 뭉치기만 하면 무서울게 없구 그 힘을 당할자가 세상에 없답니다. 뭉치면 이기니 뭉쳐서 싸우자요!》

어머님의 말씀은 녀인들의 가슴에 힘과 투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각성된 푸옌동사람들은 마침내 구호를 웨치고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이 지방에서 제일 큰 악질지주놈의 집으로 몰려갔다. 여기에 주변마을 농민들까지 합쳐져 그 수는 5천여명에 달하였다.

시위군중은 지주놈의 집을 에워싸고 악질지주를 타도하자, 3,7제, 4,6제를 실시하자라는 구호를 웨치며 밤새껏 싸웠다.

바빠맞은 지주놈은 어둠을 리용하여 누구도 모르게 빠져나가 바다오거우경찰놈들을 끌고왔다.

말을 타고 달려온 경찰놈들은 시위군중들에게 당장 헤쳐가라고 호통쳤다.

그러자 김정숙어머님을 비롯한 구호선창조원들이 《경찰은 물러가라!》, 《악질지주를 타도하자!》고 소리높이 웨쳤다. 군중들은 구호를 받아웨치며 경찰놈들을 맞받아 행진해나갔다. 군중들의 뭉친 힘앞에 경찰놈들은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군중을 향하여 우리의 뭉친 힘은 그 어떤 총칼로도 막을수 없으니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완강히 싸우자고 호소하시였다.

대오가 옌지시가를 가까이 하고있을 때 경찰놈들이 또다시 나타나 마구 총질을 하면서 긴칼을 뽑아들고 시위군중들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구호선창조와 함께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더욱 힘차게 나가자고 웨치시였다.

열정적인 그 호소에 힘을 얻은 군중은 《와-》 함성을 지르며 또다시 앞으로 밀고나갔다.

시위군중들의 기세에 겁을 먹은 경찰놈들은 물러가고 지주놈들은 물론 현 우두머리놈도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수 없었다.

어머님께서는 이 시기 선전대의 임무뿐아니라 소년선봉대원들과 아동단원들을 이끄시고 규찰대의 임무도 수행하시였다.

그리하여 추수투쟁은 푸옌동을 비롯한 옌지현일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이듬해 봄에 있은 춘황투쟁때에도 통신련락, 밀정감시, 군중선동사업과 같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추수투쟁과 춘황투쟁을 통하여 어머님께서는 각성되고 뭉친 인민대중의 힘이 참으로 크다는것을 깊이 느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공청에 가맹하시여 공청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시였다.

일제는 날로 늘어나는 혁명력량을 짓눌러보려고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조선사람 백명을 죽이면 그중에서 적어도 한명은 공산당원이거나 공청원이니 사정없이 죽이라고 하면서 온 둥만땅을 피바다,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던 1932년 7월 일제 《토벌대》놈들은 푸옌동에도 나타나 집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날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님을 일제놈들에게 빼앗기시였다.

어머니와 형님의 희생은 김정숙어머님께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였다.

어머님께서는 분하고 절통함을 억누르시고 굳세게 일어서시며 기어이 원쑤를 갚으리라 다짐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날로부터 열흘후인 주체21(1932)년 7월 25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에 가맹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공청에 가맹하시면서 엄숙히 선서를 하시였다.

《나는 영광스러운 공산주의청년동맹에 가맹하면서 동맹의 한 성원으로 된 영예와 긍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우겠습니다.

…

나는 투쟁과 생활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며 언제나 앞장에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조선혁명의 참된 전위가 될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 엄숙한 선서는 어머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앞에, 조국과 혁명앞에 다지신 맹세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공청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해나가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인민들을 혁명화하여 조직에 묶어세울데 대한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시였으며 적들의 《토벌》로부터 혁명군중을 보호할데 대한 조직의 지시를 집행하시여 사람들로부터 마을의 보위자, 생명의 은인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였다.

추수투쟁—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엔다오(간도)일대의 조선농민들이 주체20(1931)년 9월부터 12월사이에 일제와 반동지주들을 반대하여 벌린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투쟁.

춘황투쟁—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엔다오일대의 조선농민들이 주체21(1932)년 봄 일제와 반동지주들을 반대하여 벌린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투쟁.

소작료—지주가 땅을 빌려준 대가라고 하여 소작인이 뼈빠지게 농사지은 곡식에서 착취해가는 몫.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교육교양, 공청사업 지도

주체21(1932)년 11월 옌지현 푸옌동에 꾸려진 유격구에 들어가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옌지현 바구공청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시였다. 그리고 구공청위원회로부터 구아동단을 지도할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였다.

이때부터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직업적인 혁명가로서 혁명활동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아동단은 어린이들을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소년들의 반일적이며 혁명적인 정치조직이였다.

따라서 아동단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를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아동단조직들은 자기의 기본사명에 맞게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키우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지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자체의 힘으로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아동단사업의 성과여부는 그를 맡고있는 지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크게 달려있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지도원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아동단학교를 잘 운영하고 연예대활동을 조직하며 아동단원들의 조직생활을 짜고들고 유격대원호사업을 잘하는것이였다.

어머님께서는 아동단지도원들이 해야 할 과업을 밝혀주시면서 아동단원들의 진정한 형님, 오빠, 언니, 누나가 되고 말과 행동에서 모범이 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당시 창차이촌(장재촌)에는 적들의 《토벌》을 피하여 여러곳에서 모여온 아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구혁명정부와 공청조직에서는 아동단학교와 합숙을 당장 지어줄 형편이 못되였다.

어머님께서는 아동단학교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결심밑에 며칠동안 아동단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여 나무를 찍어오시였다. 이렇게 되자 유격구의 수많은 인민들이 저마다 학교짓는 일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얼마후에는 아동단학교가 일떠서게 되였다.

어머님께서는 학교로 쓸 건물이 일떠서자 책상과 의자, 칠판도 마련하시고 아동단원들을 먹이고 공부시키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해나가시였다.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아동단지도원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로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키우기 위한 교육교양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티없이 깨끗한 마음을 심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이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어느날 아침 아동단원들과 함께 뒤산에 오르시여 해돋이를 구경하는 그들에게 태양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라고 하시였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 고마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에게 태양은 헤아릴수 없이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만물이 태양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것처럼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태양과 같은분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

아동단원동무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받들고 장군님만을 따르는 참된 전사가 되여야 합니다.》

어머님의 말씀은 어린 아동단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또한 아동단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이 어떤 놈들인가를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도 진행하시였다.

아동단원들은 대부분이 이국땅에서 태여났거나 어려서부터 조국을 떠나 이역땅에서 살아왔다.

그런것만큼 그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조국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자연부원에 대하여, 외래침략자들과 싸워이긴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투쟁력사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어쩌다 생긴 조선의 사과 한알을 놓고도 아동단원들의 가슴속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시였을뿐아니라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이 어떤 놈들인가 하는것을 깊이 깨우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아동단원들은 피맺힌 원쑤 일제와 그 앞잡이 지주, 자본가놈들을 기어이 때려부실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에 대한 교육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유격구의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아동단학교에 받아들이도록 하시였으며 그들을 위한 교재도 손수 마련하시였다.

우리 말과 글, 산수,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등을 가르쳐주시면서 토론과 론쟁도 하게 하시였으며 글짓기도 조직하시였다.

아동단원들을 군사적으로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그들의 체력을 끊임없이 단련시켜나가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강한 조직생활과 실천투쟁속에서 혁명의 후비대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조직에서 주는 과업을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교양하시였다.

성격검토회를 지도해주시였으며 아동단원들이 아침마다 나팔소리에 맞추어 기상하고 체조와 아침모임, 학습과 과외활동, 좋은일하기 등을 진행하는것을 생활화하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혁명실천속에서 더욱 단련시켜나가시였다.

보초근무도 세우고 통신련락임무도 수행하게 하며 근거지방어전투와 유격대원호사업에도 적극 참가시키시였다.

씨뿌리기와 김매기, 가을걷이 등 농사일을 통해서도 단련시키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특히 아동단연예대활동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아동단연예대활동은 어린이들의 정서를 풍부히 하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할뿐아니라 유격대원들과 군중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어머님께서는 창차이촌아동단원들로 연예대를 무어가지고 여러마을을 찾아다니며 공연하시였다.

그후에는 옌지현 아동단연예대사업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하나의 공연종목을 선정해도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내용이 담긴것으로 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가무 《단심줄》과 《13도자랑》, 노래 《장군별 따라서 조국땅으로》, 무용《흰 갈매기》등 사상적내용이 좋은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게 되였다.

어머님께서 이끄시는 아동단연예대는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아동단연예대는 유격근거지만이 아니라 적들이 통치하는 지역들에도 나가 로동자, 농민들속에서 공연하였다.

1933년 7월에는 반일부대를 찾아가 힘있는 연예활동을 벌림으로써 그들이 유격대와 손잡고 싸워나가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옌지현 아동단연예대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예대를 샤오왕칭(소왕청) 마촌으로 부르시여 공연을 보아주시고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들에게 붉은넥타이를 선물로 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에게 넥타이를 매여주시면서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붉은넥타이를 맨 아동단원들의 가슴은 언제나 장군님만을 따르는 한마음으로 붉게 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 힘을 넣어 교육교양하신 아동단원들은 모두가 훌륭한 유격대원, 재능있는 정치공작원이 되여 나라 찾는 싸움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그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귀중한 목숨을 바친 투사들도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공청조직이 자기 사업을 잘하게 하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바구공청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동단사업을 맡아보시던 어머님께서는 주체23(1934)년 가을 옌지현공청위원회로 소환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여기에서 주로 내부사업과 함께 적통치구역에 있는 공청조직들의 사업을 맡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전해 3월 왕칭에서 진행된 공청일군회의에서 공청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공청대렬을 늘이는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일부 일군들은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을 파악이 없다느니, 사업에서 결함이 있다느니 하면서 공청대렬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님께서는 이런 실태를 헤아리시고 공청조직들에 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왕칭공청일군회의에서 하신 연설내용을 해설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실지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게 하시였다.

어머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공청대렬이 늘어나고 그 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이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공청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유격구에 조성된 어려운 난관을 뚫고나가는데서 앞장서게 하시였다.

푸옌, 왕위거우(왕우구)유격구를 비롯한 여러 유격구에 있던 군중들이 쓰팡타이(사방대)로 이동한 때였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쓰팡타이는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그가운데서도 식량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섰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부닥친 난관앞에 겁을 먹고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때에도 어머님께서는 공청원들과 아동단책임자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속에서 해설선전사업을 하게 하시였다.

공청원들은 어머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군중속에 들어가 지금은 먹을것이 없어 고생하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고 유격대가 있어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온다는것을 해설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이처럼 김정숙어머님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공청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실천투쟁속에서 수많은 공청원들이 믿음직한 혁명투사로 굳세게 자라났다.

아동단—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광범한 농촌지역과 유격근거지안에 조직하신 소년정치단체.

3. 유격구를 공고화하고 사수하기 위한 투쟁

유격구를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21(1932)년 여름부터 이듬해 초까지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구들이 창설되였다.

그러나 갓 창설된 유격구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유격구에는 식량과 집을 비롯하여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게다가 일제놈들은 유격구가 꾸려진 첫 시기에 그것을 없애보려고 미친듯이 덤벼들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유격구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유격구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시였다.

유격구가 창설된 다음 그것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정권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에 세워야 할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런데 유격구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일부 지역들에서는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다른 나라의 경험을 그대로 본

따서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쏘베트정부를 내왔다. 그리고 개인소유는 다 없애고 생산도 분배도 모든것을 공동으로 실시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회의들에서 쏘베트로선의 좌경적본질을 폭로비판하시고 유격구들에 세워야 할 정권은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그리고 유격구들에 시급히 인민혁명정부를 세울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로선을 높이 받들고 모든 유격구에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유격구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인민혁명정부의 우월성을 해설선전하시였다.

특히 주체22(1933)년 3월 푸옌유격구 창차이촌인민들앞에서 하신 연설은 이곳 인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의 우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는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시였다.

어머님의 연설에 감동된 한 아주머니는 자기 집 송아지문제를 제기하였다. 그것은 지주놈의 소를 길러준 값으로 송아지를 받았는데 앞으로 인민혁명정부가 서면 그 송아지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 하는것이였다.

어머님께서는 그 송아지는 아주머니네것이라고, 인민혁명정부는 인민들의 재산은 어느것이나 철저히 보호해준다고 하시였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렇다면야 그 고마운 정부를 누가 싫다고 하겠는가고 하면서 자기는 찬성이라고 하였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낮과 밤을 이어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인민혁명정부가 어떤 정부인가를 똑똑히 알도록 해설선전사업을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옌지현 왕위거우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울때에도 구공청대표의 자격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아동단연예대의 경축공연을 조직하시고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연설도 하시였다.

그리하여 유격구의 모든 사람들이 인민혁명정부야말로 참된 인민의 정부라는것을 깨닫고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유격구인민들이 근거지에서 누리는 참다운 삶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보람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2(1933)년 4월 유격근거지에서 처음으로 맞는 5.1절을 크게 경축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행사가 근거지인민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고 적통치구역에서 온 대표들에게 유격구인민들의 보람찬 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시였다.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행사가 진행되게 될 여러 마을들을 잘 꾸리며 아동단원들의 꽃체조와 연예공연을 준비할데 대한 분공을 받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공청원들과 아동단핵심성원들의 협의회를 여시고 분공조직을 구체적으로 짜고드시였으며 행사준비를 앞장에서 이끌어나가시였다.

그리하여 5.1절경축행사에 참가한 유격구인민들과 적통치구역에서 온 혁명조직대표들은 인민의 새 생활을 펼쳐주시고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고마움을 가슴깊이 느끼면서 근거지를 끝까지 지켜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특히 유격구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일제는 유격구를 없애버리려고 《토벌》을 강화하는 한편 근거지인민들을 굶겨죽이려고 한알의 쌀, 한줌의 소금도 유격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지어는 근거지주변의 밭에 있는 곡식까지 걷어가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적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소년선봉대원들로 경비를 조직하고 추수전투성원들로 하여금 베여놓은 곡식을 제때에 실어나르게 하시였다.

한편 밭에 달려들어 곡식을 걷어가는 악질지주놈을 체포처단하고 많은 곡식을 찾아오기도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인민들과 함께 눈속을

헤치며 떨어진 잣송이를 줏고 풀뿌리를 캐시였으며 적통치구역에 나가 식량도 구해오시였다.

어머님의 희생적인 투쟁은 근거지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고 유격구를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24(1935)년 3월 안투(안도)현 처창쯔(처창즈)유격구에 옮겨가시여서도 어려운 식량문제를 풀기 위한 활동을 벌리시였다.

그때 처창쯔유격구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갑자기 각 지방에서 천여명의 군중이 모여온데다가 적들의 끊임없는 《토벌》공세와 《봉쇄》책동에 의하여 엄혹한 식량난을 겪게 되였다.

거기에다 대오안에 숨어있던 암해분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책동으로 식량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처창쯔에 오시여서도 유격구공청사업을 지도하시던 어머님께서는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혹한 기근을 이겨내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공청원들과 아동단원들을 묶어세워 유격구에 들이닥친 시련을 헤쳐나가는데서 그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고 핵심이 되도록 이끄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유격구에 먼저 들어온 공청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살다나니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것을 아시고 그들이 조직생활을 할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집이 없어 뿔뿔이 흩어져사는 아동단원들을 위하여 아동단합숙을 자체의 힘으로 짓도록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국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지금 처창즈유격구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아동단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누가 풀어주기만을 기다릴수야 없지 않습니까.

…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김일성**장군님께서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키우라고 하신 말씀을 관철해야 합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아동단합숙이 꾸려져 저마

끔 흩어져살던 아동단원들이 아동단학교에 모여 글도 배우고 조직생활도 하게 되였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묶어세운 공청원들과 아동단원들이 봄철씨붙임을 하는데서 앞장서도록 이끄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굶주려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뛰여다니던 공청원들마저 기진하여 주저앉았을 때 그들에게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청년전위들인 우리 공청원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굶어쓰러진 처창즈인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처창즈의 혁명군중을 일으켜세우고 우리 혁명을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공청원들이 주저앉으면 근거지인민들이 다 굶어죽고맙니다.》

김정숙어머님의 호소에 따라 공청원들은 공청파종대를 조직하고 봄철씨붙임전투를 시작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사람들속에 들어가시여 《풀을 뜯어먹으면서라도 밭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유격근거지를 지키고 원쑤놈들을 물리칠수 있습니다. 모두 힘을 내여 일어납시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봄철씨붙임전투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쓰러졌던 인민들이 이를 악물고 밭에 나가 공청파종대와 함께 밭을 뚜지고 씨를 뿌리였다.

며칠째 끼니를 번진 사람들은 밭고랑을 기여다니면서 씨를 뿌렸다. 밭고랑에 쓰러져 그대로 숨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씨는 겨우 뿌려놓았으나 아무것도 먹을것이 없어 풀뿌리와 개구리 지어 그 알까지 건져먹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토록 어려운 때에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연예공연을 조직하시여 인민들에게 힘을 주시였다.

어느날 밤 유격대병실앞에서 아동단연예공연을 할 때였다.

《총동원가》를 부르며 유희를 하던 아동단원들가운데서 제일 나이 어린 소녀가 쓰러졌다. 혹심한 굶주림이 어린 소녀의 마지막 기운마저 진해버리게 하였던것이다.

노래소리는 끊어지고 아동단원들도 관중들도 모두 당황해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급히 달려나가시여 소녀를 일으켜안으시였다.

어머님의 품에서 정신을 차린 소녀는 신음소리대신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소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자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모두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합창하였다.

이 노래소리는 모두의 가슴을 불굴의 투지와 결사의 각오로 끓게 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적구인민들과 련계를 지어 식량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리시였다.

그때 유격구에는 쥐와 뱀도 한마리 남지 않았고 풀도 뜯어먹을것이 더는 없게 되였다.

그런데도 유격구의 책임적인 자리에 들어앉았던 민족배타주의자들은 적구의 지하조직성원들은 다 《민생단》련루자들이라고 하면서 적구에 식량공작을 못 나가게 하였다.

이자들은 부대가 떠나면서 남겨둔 자금도 다 제 주머니에 넣었으며 량식과장이 적구에 나가 식량을 구해오려 하였다고 그를 《민생단》혐의자로 몰고 박해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자들의 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였다.

《지금 형편에서 적통치구역에 가지 않고서는 식량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구의 지하혁명조직들과 련계를 가지고 식량공작을 하자고 하는데 대하여 적구지하조직성원들은 거의다 〈민생단〉련루자라고 하면서 그들과 손을 잡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혁명동지들을 믿지 않는 옳지 못한 태도이며 사실상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것과 같습니다.

…

우리는 적구에서 투쟁하는 지하조직성원들을 믿고 그들과 대담하게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량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김정숙어머님의 명백하고 사리정연한 말씀에 여러 일군들이 열렬히 호응해나서자 배타주의자들은 더는 적구조직과의 련계를 막아나설수 없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24(1935)년 6월 하순에 두만강을 건너 부령, 연사지구에 나오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소식을 들려주어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으며 조직선이 끊어

졌던 성원들에게 조직선을 이어주시였다.

그리고 조직성원들과 인민들이 마련해준 적지 않은 원호물자와 자금을 가지고 7월 중순에 처창즈로 돌아오시였다. 그 원호물자와 자금은 처창즈인민들의 생활을 보탬하는데 도움이 되였다.

그해 여름 왕칭에 갔던 오중흡선생님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1차베이만(북만)원정의 어려운 길에서 몸소 지으신 《반일전가》를 배워가지고 왔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노래는 몇만석의 쌀도 대신할수 없는 귀중한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먼저 공청원들과 아동단원들에게 정력적으로 배워주시였다.

《반일전가》는 그들을 통하여 삽시에 온 처창즈에 울려퍼지게 되였다.

조국땅을 피바다에 잠기게 한 철천지원쑤 일제와의 결사전에로 부르는 이 투쟁의 노래, 신념의 노래와 함께 처창즈인민들은 마지막 시련의 고비를 넘기였다.

유격대원들과 인민들, 청소년들이 처창즈의 시련을 앞장에서 이겨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김정숙어머님께 찾아왔다.

어머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신다는 마음의 기둥이 없었더라면 처창즈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했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청소년들과 인민들을 불러일으켜 그 모진 처창즈의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편 근거지인민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일제놈들의 《토벌》로 불타버린 집을 다시 짓는 인민들의 일손을 적극 도우시였으며 추위에 떠는 로인에게는 자신께서 입고계시던 솜옷을 벗어주시였다. 근거지에 전염병이 생기면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시였으며 희생된 전우들의 유가족들을 돕는것을 응당한 도리로 여기시고 그들의 생활을 여러모로 도우시였다.

이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한없는 인정, 숭고한 의리는 근거지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우고 어려운 난관속에서도 유격구를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게 하였다.

유격구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

일제는 유격근거지가 창설되자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1933년 초부터 유격구에 대한 《토벌》을 감행하였다.

특히 그해 겨울에 들어와 적들은 옌지현 유격구들에 대한 《토벌》공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여기에만도 수천명의 병력을 들이밀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유격구인민들과 공청원들 그리고 소년선봉대원들을 유격구보위를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우리모두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주고 지켜주는 고마운 세상인 유격구를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합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발톱까지 무장한 적《토벌대》와 싸워이기자면 유격대와 인민이 하나가 되여 목숨걸고 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유격대를 적극 돕는데서 소년선봉대원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계속하여 공청원들이 유격구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과 유격구를 지키는 전투에서 주력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적들의 《토벌》로부터 유격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높은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시였다.

1933년 2월 적들은 수많은 병력으로 푸옌유격구에 달려들었다.

유격대원들은 달려드는 적들과 세찬 전투를 벌렸다.

어머님께서는 전투가 시작되자 아동단원들과 소년선봉대원들을 이끄시고 재빨리 유격대원들이 차지한 진지에서 얼마 떨어진 둥골(동골) 서쪽산으로 오르시였다.

릉선앞에 매복해있던 유격대원들은 달려드는 적《토벌대》놈들에게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전투광경을 지켜보시던 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에게 구호와 노래를 힘있게 부르자고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선창에 따라 아동단원들과 소년선봉대원들이 웨치는 구호와 혁명가요소리는 산판에 울려퍼져 유격대원들에게는 힘을 주고 적들에게는 공포를 주었다.

그런데 쫓겨가던 적들이 대오를 수습해가지고 유격대진지를 에돌아 아동단원들과 인민들이 있는 릉선으로 달려들기 시작하였다. 소년선봉대원들과 아동단원들은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고 흩어져가려고 하였다.

어머님께서는 《동무들! 흩어져서는 안됩니다. 모두 돌을 굴립시다.》라고 하시며 대오를 수습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적들이 경사급한 산중턱에 이르자 돌을 굴리라는 신호를 내리시였다.

소년선봉대원들과 아동단원들이 굴리는 바위돌들은 놈들을 사정없이 족치였다.

적들은 너무 급해 달려들 생각은 못하고 총을 던지고 달아나거나 돌에 맞아 꺼꾸러졌다.

이날 어머님께서는 소년선봉대원들과 함께 산중턱아래에 내려가 장총만 하여도 8자루나 걷어가지고 오시여 그 총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족치게 하시였다.

푸옌유격구방어전투는 승리로 끝났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후에도 근거지방어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소년선봉대원들과 아동단원들을 이끄시고 인민들과 함께 전호도 파고 불비속을 뚫고 끓인 물도 나르면서 유격대를 적극 도우시였으며 총을 잡고 직접 전투에도 참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근거지인민들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시였다.

1933년 12월에 이르러 적들은 유격구에 대한 새로운 《토벌》공세를 준비하고있었다.

이에 대처하여 일부 불리한 지역의 유격구인민들을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이 진행되게 되였다.

이 조치에 따라 창차이촌의 군중들도 쓰팡타이로 옮기게 되였다. 100여명이나 되는 군중이 적들의 눈을 피해가며 이동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대렬을 둘로 갈라 이동시킬데 대한 의견을 내놓으시고 선두대오와 함께 창차이촌을 떠나시였다.

어머님께서 인솔하신 첫 대오가 출발한 다음 인차 나머지성원들이 선두대렬의 뒤를 따라섰다.

그런데 대오는 일제《토벌대》놈들의 추격을 받게 되였다. 이 사실을 제일먼저 알게 된것은 바구아동단 분단장이며 아동단나팔수인 김기송선생님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서슴없이 유격대돌격나팔을 부시였다. 그러자 적들은 유격대가 달려오는줄 알고 눈속에 엎디여 일어날줄 몰랐다. 한참후에야 적들은 나팔소리가 나는쪽을 향하여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는 사이에 군중들은 행군을 다그쳐 산마루를 넘어 집결장소에 이르렀다. 하지만 자리를 옮겨가며 나팔을 부시던 김기송선생님께서는 적탄에 맞아 장렬한 최후를 마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사랑하는 동생과 영결하시면서 원쑤를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를 다지시였다. 그러시고는 구출된 혁명군중들을 이끄시고 쓰팡타이로 이동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유격구방위의 나날에 유격구의 기수로서의 혁명적의지와 전투적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유격구－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유격근거지창설방침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시기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창설되였던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

유격구는 유격대가 완전히 장악하고있는 구역 즉 적들의 통치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인민혁명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이다.

인민혁명정부－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930년대 전반기에 두만강연안 유격구들에 세워졌던 새형의 혁명정권.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였다.

쏘베트정권－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결과에 생겨난 로동계급의 정권의 한 형태.

반《민생단》투쟁에서 나타난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

1930년대 전반기 동만의 유격구들에서는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일으킨 반《민생단》투쟁이 험악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자들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이만원정을 하시는 기회를 리용하여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잡아가두거나 무참히 죽이는 행동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그때 싼다오만(삼도만) 닝즈잉(능지영)에서도 반《민생단》투쟁이 험하게 벌어졌다.

이곳 반《민생단》투쟁을 책임졌다는 놈은 어느 한 대원이 밤새 보초를 서고 집에 들어가면서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를 《민생단》으로 몰아댔다.

그런가 하면 작식대원이 밥을 좀 태웠다고 하여 《민생단》으로 몰았고 《민생단》혐의에 걸린 동무를 동정하였다고 하여 《민생단》으로 몰았다.

《민생단》혐의자로 감방에 갇혀있는 사람들가운데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잘 알고계시는 현당책임자나 유격대지휘관도 들어있었다.

어머님께서는 그들이 《민생단》이라는것을 결코 믿지 않으시였다.

하지만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민생단》이라는 혐의를 들씌우고 박해하였다. 이런 일로 하여 유격구안의 군중들속에는 공포의 분위기가 떠돌게 되였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민생단》투쟁에서 나타난 편향을 극복하는것은 조금도 미룰수 없는 문제였다. 이 투쟁을 어떻게 벌리는가에 따라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보호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은 나쁜 놈들의 작간때문이라는것을 간파하시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모든 공청원들이 이 투쟁에서 경각성을 높이도록 하시는 한편 몸소 견결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시여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시였다.

어머님께서 푸옌유격구에 계실 때 그곳에서는 《민생단》을 심판하는 군중모임이 있었는데 《민생단》으로 처형당하게 된 사람은 일찍부터 녀성공청원으로 일을 잘하여온 최희숙선생님이였다.

누구나 최희숙선생님이 결코《민생단》일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자신이 《민생단》으로 몰릴가봐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있었다. 《민생단》으로 몰린 사람들을 동정만 하여도 《민생단》으로 몰아대는 형편에서 그 혐의자를《민생단》이 아니라고 보증해나선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서슴없이 연단에 나가시여 그를 옹호해나서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최희숙동무가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동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혁명에 충실한 동무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죽인다면 좋아할것은 적들밖에 없을것이라고 사리정연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군중들은 한사람같이 어머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 지지해나섰다.

무지막지한 민족배타주의자들이였지만 군중들의 기세에 눌리워 어쩌지 못하고 최희숙선생님을 무죄로 내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후날 최희숙선생님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에서 잘 싸웠으며 적들에게 체포되여 두눈을 빼앗기고도《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쳐 조선혁명가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절개를 온 세상에 떨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또한《민생단》혐의를 받고있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싸워나가도록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당시 둥거우(동구)초소를 지키고있던 반일자위대원들은 민족배타주의자들로부터 《민생단》련루자라는 루명을 쓰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느날 그들을 찾으시여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선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인 우리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혁명적원칙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그후 이곳 반일자위대원들은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아무리 《민생단》으로 몰려고 하여도 굽어들지 않고 꿋꿋이 맞서싸웠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민생단》으로 몰려 감방에 갇혀있는 동지들이 신심을 잃지 않고 굳세게 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매일같이 감시의 눈을 피해가며 《민생단》으로 몰려 감방에 갇혀있는 동지들에게 먹을것을 넣어주시고 필요한 약품도 구해서 들여보내주시였다.

어머님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감방안의 동지들은 굶어죽거나 앓아죽는 위험으로부터 구원될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가 누구였는가 하는것을 알게 된것은 《토벌대》가 싼다오만으로 밀려들었던 날에 이르러서였다.

그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 녀동무와 함께 유격대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고계시였다.

점심식사는 버섯을 넣고 끓인 좁쌀죽이였다.

가마가 한창 끓고있을 때 적《토벌대》의 총소리가 울렸다.

유격대원들은 급히 산으로 올랐고 적들은 골짜기와 산발을 타고 밀려들었다.

정황을 살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얼른 풀을 뜯어 또아리를 트시고는 펄펄 끓는 죽가마를 머리에 이고 산으로 올리달리시였다.

이 광경을 뒤늦게 발견한 적들은 총을 쏘아대며 쫓아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녀동무와 함께 끝내 유격대가 있는 산마루까지 오르시였다.

여러 사람이 달려와 죽가마를 받아주었는데 그들은 감방에 갇혔던 《민생단》혐의자들이였다.

전투가 끝나자 어머님께서는 소랭이에 죽을 담아드시고 유격대원들에게로 다가가 한사발씩 퍼주시였다. 하지만 감방에서 나온 대원들은 슬금슬금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갔다.

《모두 여기에 와서 더운 죽을 드십시오. 죽을 가져왔는데 받지 않고 왜 자꾸 피하기만 합니까.》

어머님의 말씀에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누가 보지 않는지 주위를 살피기부터 하였다. 그러면서 죽 한그릇때문에 《민생단》에 걸려들수 있다고 어머님을 걱정하였다.

어머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에게 동무들은 절대로 《민생단》일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한테 죽그릇을 안겨주며 말씀하시였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동무들이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몹시 가슴아파하실것입니다. 이제 장군님께서 이 엄중한 사태를 바로잡으실것입니다. 그러니 신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혁명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매일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무의 손길을 보내준분이 김정숙어머님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죽그릇을 받아들던 그들은 깜짝 놀랐다. 끓는 죽가마를 이고오시느라 김정숙어머님의 머리가 절반이나 그슬려있었던것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민생단》으로 몰린 동지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그들모두가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잘 싸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머님의 희생적인 노력도 《민생단》으로 몰린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지는 못하였다.

어머님께서는《민생단》의 루명을 쓰고 희생되는 혁명동지들을 구원할수 없는 통분함으로 몸부림치시였다.

그럴수록 어머님께서는 베이만원정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어서 돌아오시여 우리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해주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24(1935)년 3월 싼다오만유격구 넝즈잉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몸가까이 만나뵈옵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넝즈잉에서 소집하신 현당비서처 일군들의 회의에 참가하시였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싼다오만유격구에서 벌어진 반《민생단》투쟁의 오유를 료해하시고 혁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폭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반《민생단》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

도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는 맺히고 옹쳤던 사람들의 울분을 풀어주고 신심과 새힘을 안겨주었다.

어머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그 귀중한 가르치심을 구절구절 가슴깊이 새기시며 한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시였다.

회의가 끝나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회의소식을 묻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하나하나 알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싶은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자신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데 있겠는가고 거듭 되뇌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신 날 싼다오만을 비롯한 현안에 있는 유격구의 유격대와 인민들은 재생의 환희와 기쁨으로 들끓었다.

《민생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와 가족, 친우들과 얼싸안고 돌아갔다.

이날 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하신분이예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싸우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영원히 그이의 혁명전사답게 떳떳이 살며 억세게 투쟁하겠어요!》

어머님의 말씀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싸워오신 자신의 생활체험의 총화였으며 영원히 **김일성**장군님만을 받들어모시고 따르시려는 철석같은 신념의 맹세였다.

참으로 김정숙어머님께서 반《민생단》투쟁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벌리신 활동은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조선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큰 공헌으로 되였다.

제2장.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일대 앙양을 위한 활동 전개

〔주체24(1935). 9－주체29(1940). 8〕

1.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주력부대 편입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처창쯔방어전투에 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4(1935)년 봄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에 따라 동만에 있던 유격구들이 해산되여 혁명군중들은 적통치구역으로 내려가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밑에 베이만땅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였다.

근거지를 봉쇄해놓고 혁명력량을 없애보려던 일제놈들의 흉계는 짓부셔지고말았다. 그러자 일제놈들은 그때까지 남아있던 처창쯔유격구에 대한 대《토벌》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가을에 이르러 처창쯔유격구에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인 주체24(1935)년 9월 18일 안투현 처창쯔유격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던 날 혁명의 무기를 수여받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혁명의 무기를 잡는것은 어머님의 절절한 소망이였다. 그것은 총대에 의해서만 나라를 찾고 일제놈들에게 희생된 부모형제들의 복수도 실현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총가목을 억세게 틀어잡고 엄숙히 맹세다지시였다.

《나는 혁명선렬들의 피가 스며있고 인민들의 조국광복념원이 어리여있는 이 총을 잡고 **김일성**장군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총 한자루를 백자루로 알고 잡으며 이 총알 한발을 백발로 알고 원쑤를 쏘겠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입대는 김정숙어머님의 생애와 활동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놓은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입대는 김정숙어머님께서 항일의 녀성영웅으로서의 풍모를 훌륭히 갖추고 총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데서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입대하신 이후 훈련과 학습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입대하신 날 신입대원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싸우면서 배워야 하며 특히 《유격대동작》을 비롯한 장군님께서 쓰신 책들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정치학습뿐아니라 사격훈련에 특별히 큰 힘을 넣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높은 군사적자질은 입대하여 처음으로 참가하신 전투때부터 뚜렷이 나타났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처창쯔유격구방어전투에 참가하시여 용맹을 떨치시였다.

1935년 10월 일제가 처창쯔유격구로 쳐들어온다는 통보가 왔다. 적들은 이 자그마한 지역에 1만명의 병력을 동원하려 한다는 것이였다.

당시 부대의 기본력량은 다른 곳으로 진출하고 유격구에는 100여명의 유격대원들과 반일자위대, 청년의용군밖에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처럼 많은 적들을 과연 막아낼수 있겠는가고 근심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러한 때 대원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적극 벌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대원들에게 만단의 전투준비를 하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싸운다면 근거지를 지켜낼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더우기 수심이 깊은 구둥하(고동하)와 깎아지른듯 한 절벽을 비롯한 방어구역일대의 자연지형지물을 잘 리용하면 아무리

많은 적이 달려들어도 막아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처창쯔유격구방어전투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시였다.

유격구를 삼면으로 공격해오던 적들은 구둥하기슭에 이르러 더 전진하지 못하고 눈먼 포사격과 비행대의 폭격만 해댔다.

유격구에서 아무런 대응도 보이지 않게 되자 적들은 한낮이 가까와올무렵 마음놓고 구둥하다리를 건느기 시작하였다.

적들이 다리중간에 들어섰을 때 사격구령이 내렸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긴칼을 휘두르며 졸병들을 돌격에로 내모는 적장교놈을 단방에 쏴눕히시였다.

장교놈이 너부러지자 졸병놈들은 다리우에서 갈팡질팡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유격대의 기관총이 불을 토하고 대원들의 집중사격이 시작되였다.

다리우에는 적들의 시체가 한벌 쭉 깔렸다.

이러한 때 청년의용군이 지키고있는 시난차(서남차)에서 둥난차(동남차)로 건너오는 지점을 돌파하려고 적들이 달려들기 시작하였다.

어머님께서 청년의용군들이 지키고있는 진지에 이르시였을 때 적들은 구둥하다리로 건너오고있었으며 한 무리의 적들은 강을 건너 이미 고지에 올라붙고있었다.

정황을 판단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힘있는 목소리로 웨치시였다.

《동무들! 돌을 굴리자요! 돌사태를 안기자요!》

청년의용군들은 방어공사때 쌓아놓았던 돌들을 굴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적들에게 있어서 상상도 못했던 불의의 타격이였다.

돌사태로 위급한 정황을 수습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적들을 한놈씩 침착하게 묘준하여 쏘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적들과 제일 가까운 전호를 차지하시고 총 한방에 적 한놈씩 쏘아눕히시였다.

적들은 녹아나면서도 어떻게 하나 방어진을 허물려고 발악하였다.

그리하여 전투는 여러날 계속되고 유격대원들에게는 때때로 탄

약이 떨어지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때마다 녀대원들과 함께 무거운 탄약상자를 두개씩이나 걸머지고 총폭탄이 비오듯 하는 위험속을 헤치며 고지로 치달아오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대원들과 함께 턱밑까지 기여오른 놈들에게 또다시 명중탄을 퍼부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적비행기의 폭격으로 창고에 불이 달렸을 때에는 희생적으로 뛰여들어 군수물자를 건져내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가렬하였던 처창쯔유격구방어전투는 유격대와 근거지인민들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유격구방어전투에 참가하시여 뛰여난 군사적지략과 사격술로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유격구를 보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시였다.

아동단원들을 보호하고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활동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안투현 처창쯔유격구도 해산되였다.

유격구가 해산되는것과 관련하여 제일 큰 문제로 나선것은 부모나 친척이 전혀 없는 20여명의 아동단원들에 대한 처리문제였다.

일부 편협한 지휘관들과 민족배타주의자들은 아동단원들을 데리고다니면 부대의 행동에 짐이 된다고 하면서 적통치구역으로 내려보내자고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들의 부당한 의견을 반대하시면서 아동단원들을 데리고갈것을 강경히 주장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적통치구역으로 내려보내는것은 그들을 한지에 내버리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동단원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이고 래일의 유격대원들이며 장차 광복될 새 조선의 주인공들입니다. 때문에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아동단원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계십니다.》

어머님께서는 계속하여 아동단원들을 적통치구역에 내려보내자는것은 **김일성**장군님의 의도에 어긋나는것이며 조선혁명의 장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모두 만난을 각오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부모없는 20여명의 아동단원들을 다 데리고가자고 말씀하시였다.

편협한 지휘관들과 민족배타주의자들도 더는 어쩔수가 없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24(1935)년 11월 아동단원들을 데리시고 부대와 함께 처창쯔유격구를 떠나시였다.

추위를 무릅쓰고 생눈길을 헤치며 산발을 타야 하는 행군은 말그대로 간고하였다.

부대는 이 길에서 불의에 맞다든 적《토벌대》와 힘겨운 전투도 해야 하였다.

하지만 아동단원들은 김정숙어머님을 따라 험한 눈길을 헤치고 적들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기어이 네이다오산(내도산)까지 따라왔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네이다오산에서 아동단원들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네이다오산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앓아누운 아동단원들을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간호도 하시고 엄동설한에 얼음을 까시고 산천어도 잡아다 먹이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각별한 보살피심속에서 아동단원들은 유격구에서처럼 학습과 조직생활을 진행하고 보초근무를 섰으며 유격대와 함께 적《토벌대》를 물리치는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그런데 부대가 네이다오산을 떠나 마안산으로 갈 때 민족배타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한 일부 지휘관들은 또다시 그들을 떼놓으려고 하였다.

이자들은 헐벗은 아동단원들을 추운 때에 끌고다니면서 고생시키겠는가, 힘겹게 부대를 따라다니는 아동단원들이 불쌍하지 않는가, 더구나 네이다오산으로 올 때 그 애들이 전투행동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었는가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아동단원들을 떼놓고가는것은 희생된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아동단원들을 책임지고 데리고가겠다고 거듭 주장하시였다.

민족배타주의자들은 더는 막아나서지 못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이끌고 어려운 행군을 다그쳐 끝내 마안산에 도착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마안산에서 아동단원들의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마안산이란 말안장같다고 하여 생긴 산이름이였다.

그런데 마안산에 이르니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밀영책임자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아이들을 밀영에 데리고왔는가고 을러멨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있으면 전투행동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서 밀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귀틀집으로 데리고가라고 하였다.

밀영책임자가 지정해준 아동단원들이 들 귀틀집은 문짝도 없고 뙤창도 찢어져 눈가루가 날려들어오는 집 아닌 집이였다. 거기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모여온 여러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네이다오산에서 온 아이들보다 더 헐벗었고 맥이 없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반《민생단》투쟁의 후과가 가셔지지 않은 마안산밀영에서 민족배타주의자들은 아동단원들에게까지 《민생단》혐의를 씌우려고 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시면서 아동단원들의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아직 녹지 않은 눈속에서 풀뿌리를 캐고 나무열매를 주어 아이들의 끼니를 보장하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자신께서는 거의 맹물로 끼니를 에우시면서 앓는 아이들을 돌보셔야 했고 누데기로 변한 아이들의 옷도 기워주셔야 했다. 잠도 끼니도 번져야 하는 힘겨운 하루하루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추위와 식량난으로 고생하는 아동단원들에게 우리에게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며 이 곤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그후 마안산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박해한 밀영의 책임성원들을 엄하게 추궁하시고 몇년전 난만(남만)원정의 길에 오르실 때 강반석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신 돈 20원으로 천을 사다 아이들에게 새 옷을 해입히도록 하시였으며 부족되는 옷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푸쑹(무송)에 있는 장위이화(장울화)선생님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여 천을 더 구해오도록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새 옷을 입고 기쁨에 넘쳐있는 아동단원들을 축하해주시면서 그들에게 **김일성**장군님

의 크나큰 은덕에 꼭 보답하며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을 따르고 보위하는 참된 전사가 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원칙적인 투쟁과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날수 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민족배타주의자들과 편협한 일부 지휘관들의 그릇된 주장을 배격하시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시며 아동단원들을 친혈육의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민족배타주의자—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함부로 배척하며 남의것은 좋은것까지 덮어놓고 반대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협애한 민족리기주의적사상을 가진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편입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난후터우(남호두)회의가 있은 다음 주체25(1936)년 3월 안투현 미훈전(미혼진)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새 사단을 편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새 사단 편성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으로 될 새 사단의 편성사업은 반《민생단》투쟁의 좌경적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마안산지구로 나오시였을 때 사단의 기본력량으로 되여야 할 부대는 쟈오허(교하)방면으로 가고 그곳에는 배타주의자들로부터 《민생단》혐의를 받고 전투대오에서 떨어진 100여명의 대원들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그 어디에 하소연을 해도 자기들의 처지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상태에 빠져있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절망으로 몸부림치는《민생단》혐의자들에게 동무들을 억울한 처지에서 건져주실분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들을 보증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올리시였다.

《장군님, 저는 이 동무들을 믿습니다. 이 동무들은 먹을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것도 입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왜놈들과 용감히 싸운 동무들입니다. 더구나 이 동무들은 〈민생단〉루명을 쓰고 죽게 된 형편에서도 북만원정의 길에 오르신 장군님께서 돌아오시기만을 손꼽아기다렸습니다.

문서들에는 어떻게 씌여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혁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려는 이 동무들의 마음만은 잘 압니다. 이 동무들은 절대로 〈민생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혁명동지들에 대한 김정숙어머님의 믿음은 한없이 두텁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이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과 대원들의 한결같은 결의를 들으시고나서 이 문서보따리보다 혁명의 길에서 싸우겠다는 동무들의 그 결의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앞에서 《민생단》문서보따리에 불을 지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태워버리신 자리에서 그들모두를 새로 편성하는 사단에 받아들인다는것을 선포하시였다.

대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러 기쁨의 눈물을 머금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러는 녀대원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였다.

《진정 우리는 장군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새로운 생을 받아안은 사람들이예요. 생각해보세요. 장군님이 아니였더라면 나는 아동단원들과 함께 굶고 떨며 울다가 세상을 마쳤을것이고 동무들은 〈민생단〉혐의자의 루명을 영원히 벗을수 없었을거예요.》

어머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모두 오늘을 잊지 말고 죽어도 장군님을 위한 길에서 죽고 살아도 장군님을 위한 길에서 살아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때 사령부호위임무까지 수행하는 친위중대인 7련대 4중대에 편입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친위대오에서 싸우게 된 영광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싸워갈 굳은 맹세를 다지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편입하신 때로부터 김정숙어머님의

혁명활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우는 가장 믿음직한 전우, 친위전사로서의 영광스러운 투쟁이 시작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친위중대에 편입하신 후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시였다.

그해 4월 부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마안산밀영을 떠나 둥강(동강)으로 행군하였다.

행군도중 부대는 만강부락에 들려 며칠간 숙영하게 되였다.

어느날 어머님께서는 한 녀대원과 함께 숙영지옆으로 흐르는 개울가에 나가 어린시절에 부르던 노래를 부르시며 빨래를 하시였다.

숙영지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래소리를 들으시고 개울가로 나오시여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리시였다가 말씀하시였다.

《동무들도 고향생각이 나는 모양이군!》

어머님께서는 녀대원과 함께 얼른 일어서시며 옷매무시를 바로하시였다.

《조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고향의 봄이 각별히 그리운 법이요.》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그리운 고향 만경대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고 천천히 내가를 거니시며 나직이 《사향가》를 부르시였다.

이날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사향가》를 배우시고 녀대원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께 고향과 가정형편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고향인 회령에 대해서와 일제《토벌대》놈들에게 사랑하는 어머님과 형님, 동생을 잃은 가슴아픈 사연을 죄다 말씀드리시였다.

피눈물나는 어머님의 가정래력을 구체적으로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갈리신 음성으로 우리는 다 같은 처지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니 우리들이 혁명을 아니할래야 아니할수가 있겠는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혁명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길에서 살고 혁명의 길에서 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찾는 혁명사업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하시며 혁명의 길에서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리고 혁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며 훌륭한 녀투사, 녀성혁명가가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안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학습도 잘하고 전투도 잘하며 살아도 오직 친위전사의 행복속에 살고 죽어도 오직 친위전사의 영광을 안고 한목숨 바치며 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것을 심장깊이 맹세다지시였다.

친위대오—위대한 수령님을 가장 몸가까이 모시고 수령님을 목숨으로 지켜싸우는 가장 충직한 전투대오.

2. 백두산근거지창설을 위한 군사정치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5(1936)년 2월 난후터우회의에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 새로운 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5월 둥강회의에서 국경연안에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경일대에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근거지창설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푸쑹지구에 진출하여 이 일대에 있는 적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게 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전투들에 참가하시여 백두의 녀장군으로서의 뛰여난 군사적지략과 용맹을 떨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라오령(로령)전투, 시난차전투, 시강(서강)전투에 이어 주체25(1936)년 8월 푸쑹현성전투에 참가하시여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고 전투승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시였다.

푸쑹현성전투는 푸쑹일대의 적들을 마지막으로 짓눌러버리는 큰 전투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푸쑹현성전투가 진행되던 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7～8명의 녀대원들과 함께 잘루목을 차지하고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 그곳을 지켜낼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였다.

잘루목은 적들로부터 빼앗은 둥산(동산)포대를 지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그리고 시내에 돌입하였던 부대들이 철수하는 경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통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가 예상외로 치렬해지자 적들을 성밖으로 끌어내다 소멸할것을 결심하시고 전 부대를 둥산으로 철수시키시였다.

그러자 적들은 일제히 성문을 열고나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를 추격하였다. 그중 한개 소대의 적들이 잘루목을 차지하려고 은밀히 접근하였다. 적들을 그대로 둔다면 사령부와 전 부대에 돌이킬수 없는 위험이 닥쳐올수 있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녀대원들과 함께 아침식사준비를 하시다가 적들이 잘루목으로 기여든다는것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녀대원들을 결사전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전을 벌립시다.

사령부의 안전을 목숨으로 사수합시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웨치시면서 사격을 시작하려는 적기관총수를 싸창으로 단방에 꺼꾸러뜨리시였다. 그리고 량손에 싸창 한자루씩 잡으시고 달려드는 적들을 기관총으로 련발사격을 하듯 쓸어눕히시였다.

그리하여 부대의 철수를 보장하고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사이에 부대들이 둥산에서 싸움준비를 갖추도록 하신 다음 현성에서 끌어낸 적들을 통쾌하게 족쳐버리시였다.

치렬하게 벌어진 푸쑹현성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 이날 우리 지휘부는 잘루목을 영웅적으로 지켜낸 녀대원들에 의해 구원되였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그들이 적을 막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적들보다 먼저 동산으로 오르지 못하였을것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후에도 창바이(장백)현 다더수이(대덕수)전투, 샤오더수이(소덕수)전투를 비롯한 백두산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두산근거지창설을 위한 군중정치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시난차전투후 마을녀성들속에 들어가시여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해설해주시면서 조국해방의 기치아래 뭉쳐 싸우자고 호소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창바이현 신싱촌(신흥촌)에 가시였을 때에도 한 가정에 들리시여 눈물속에 세월을 보낼것이 아니라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여 싸워야 하며 혁명조직에 들어가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그해 8월 하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몇달전에 들렸던 만강에 다시 이르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기간 마을인민들속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사상을 심어주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힘있는 연예활동을 벌리시였다.

만강을 떠나기 전날밤에 진행된 연예공연에서 김정숙어머님께서 부르신 《〈토벌〉가》는 사람들의 가슴에 투쟁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다더수이부락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진행된 연예공연에서도 녀대원들과 함께 유격대춤을 추시고 군중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선동연설도 하군 하시였다.

참으로 김정숙어머님께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 진출하신 나날에 벌리신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은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건설하고 지하조직망을 꾸리는데 큰 힘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동강회의를 끝내시자 곧 백두산지구에 새로운 근거지를 꾸릴것을 결심하시고 김주현, 리동학선생님들에게 선발대의 임무를 맡겨주시였다.

그들이 백두산지구에 밀영위치를 잡으러 떠나던 날 김주현선생님은 사령부호위임무를 맡고있는 리동학선생님을 부대에 남게 하였으면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러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두산지구에 새로 근거지를 꾸리는 사업은 조선혁명의 전반문제와 관련되기에 장군님께서 동무들을 특별히 먼저 보내시는것일거라고, 사령부호위사업은 우리들이 맡아하겠으니 마음놓고 그 일에 전심해달라고 부탁하시였다. 그리하여 김주현, 리동학선생님들이 현지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백두산지구에 나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9월 20일 김주현선생님의 안내를 받으시며 부대를 이끄시고 소백수골에 이르시였다.

다음날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주력부대 지휘성원들의 회의를 여시고 백두산근거지창설사업을 다그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시였다.

백두산근거지창설은 밀영을 건설하는것과 그 주변지역에 혁명조직을 내오는 두가지 내용을 포괄하고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밀영건설이 시작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두산밀영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였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밀영건설에 참가한 대원들에게 밀영건설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해설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사령부밀영을 건설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밀영건설에 쓰이는 나무를 한대한대 손도끼로 다듬으시여 쌓아올리시였다.

밀영이 다 되였을 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실 책상과 의자를 성의껏 만들게 하시고 방안온도도 잘 보장하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밀영주변의 나무들에 껍질을 벗기고 《백두산에 장수별 떴다 백두산장수별 삼천리를 비친다》, 《남존녀비 반대 녀성해방 만세 헐벗고 천대받는 조선녀인들 모두 일어나 항일전에 참가하자》라는 혁명적인 구호들도 쓰시였다.

소백수골에 사령부밀영인 백두산밀영이 꾸려짐으로써 조선혁명의 책원지, 중심적령도거점이 마련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실현해

나갈수 있게 되였다.

백두산밀영이 건설된 다음 국내 백두산지구에는 사자봉, 곰산, 선오산, 무두봉, 소연지봉 등 밀영들이 꾸려지고 시지엔다오(서간도)쪽에는 허이샤쯔거우(곰의골), 즈양가이(지양개), 얼다오강(이도강), 헝산(횡산), 리밍수이(리명수), 푸허우수이(부후물), 칭봉(청봉) 등지에 위성밀영들이 꾸려졌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두산밀영건설이 끝난 다음 지하조직망을 꾸리는 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밀영건설을 지도하신 다음 허이샤쯔거우로 떠나시면서 압록강연안 혁명조직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할데 대한 과업을 어머님께 맡기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백두산주변지역에 무어진 조국광복회조직들에 통신원을 보내여 혜산을 비롯한 압록강연안 특히는 백두산주변지역의 형편과 주민구성, 인민들의 사상동향과 혁명조직들의 활동정형을 료해하게 하시였다. 한편 조직을 늘이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원호사업을 잘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리명수, 포태산을 비롯한 백두산주변지역들에 조국광복회조직망들이 급속히 늘어났다.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눈부신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26(1937)년 1월 공산당에 입당하는 영예를 지니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이처럼 백두산근거지창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빛나는 공훈을 세우신 기간은 세련된 군사정치활동가, 불굴의 혁명투사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높이 발휘한 뜻깊은 나날이였다.

조선혁명의 책원지—조선혁명의 전략전술과 주체적인 방침을 세우며 그것이 실현되도록 이끄는 거점으로 되는 곳.

3. 타오취엔리, 신파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하정치활동

타오취엔리에서의 지하정치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신 다음 그에 의거하여 당 및 조국광복회조직을 전국적범위에서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우수한 정치공작원들을 국경일대와 국내에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김정숙을 도천리에 파견한것은 1937년 3월, 서강회의 전야였다.

그해는 어디서나 사람들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리제순도 박달도 권영벽도 김재수도 다같이 사람을 요구하였다. 그 요구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바로 김정숙의 도천리파견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26(1937)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창바이현 타오취엔리(도천리)에 나가 지하정치활동을 벌릴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였다.

그 임무는 타오취엔리에 자리를 잡고 샤강구(하강구)일대의 사업을 추켜세운 다음 신파에 건너가서 조직망을 튼튼히 꾸려 신파통로를 개척하고 그 통로를 리용하여 함흥, 원산을 비롯한 동해안일대에 조국광복회조직들을 늘이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어머님을 떠나보내시면서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하게 된다는 진리를 안겨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타오취엔리에서 지하정치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타오취엔리는 신파대안인 스싼다오거우(13도구)부락에서 30리가량 떨어진 비교적 큰 마을로서 샤강구일대에 혁명조직을 늘이고 국내에로 진출하는데서 발판으로 될수 있는 유리한 곳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26(1937)년 4월초에 무산에서 살다가 이주해오는 엄옥순으로 변성명을 하고 타오취엔리로 들어가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타오취엔리에서 지하조직성원인 구장으로부터 이곳 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곳 지하조직성원들에게 자신께서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인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마을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낮에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농사일을 같이 하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찾아다니시며 일손을 도와주고 살림살이도 걱정해주시였다. 그러는 사이에 마을사람들과 빨리 친숙해지고 한주일후에는 200세대가 넘는 집과 마을사람들의 이름을 거의다 익히시였다.

이 나날에 어머님께서는 녀성지하공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남모르는 로고를 바치시였다. 밤마다 우물가에 나가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법을 익히시였다. 그리고 그네뛰는 련습도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마을사람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지나가는 길에 잠간 들렸던 집에서도 나무를 패주고 물도 길어주고 방아도 찧어주시였으며 앓는 로인들의 병구완도 성의껏 해주시였다.

마을사람들이 김정숙어머님을 잊을수 없게 된것은 류쟈골(류가골)의 지주놈이 제집에서 부려먹던 소녀를 열병에 걸렸다 하여 외진 산중초막에 내다버린 일이 있었을 때였다. 사람들은 그가 불쌍하다고 말은 하였지만 누구도 그 소녀를 돌봐줄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저없이 초막에 찾아가 소녀와 침식을 같이하시며 병구완을 해주시였다.

어머님께서 초막에 찾아가시였다는 소식을 들은 지하조직원들이 뒤따라왔다.

그들은 가까운 이웃들도 돌볼 생각조차 못하는 소녀를 품에 안고 미음을 떠넣어주시는 어머님의 모습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삼키면서 어머님께 초막을 떠나실것을 요청하였다. 그것은 살릴 가망도 없는 아이를 간호하다가 열병에 전염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령부에서 준 임무는 어떻게 하고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혁명조직성원들은 소녀를 돌봐주더라도 침식을 같이하는것만은 제발 그만두라고 말리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웃으시며 《걱정말고 돌아가세요. 목숨이 두렵다고 아이 하나 살려 못낸다면 나라는 어떻게 찾고 인민은 어떻게 구원해내겠어요? 인민을 살리자고 내댄 목숨인데 두려울것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 불쌍한 소녀를 끝내 살려내시였다.

이때부터 마을사람들은 김정숙어머님을《우리 옥순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찾아와 마음을 터놓았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혁명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어느날 샤강구지하조직책임자들을 만나시여 혁명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늘여나갈데 대하여 말씀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드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특히 녀성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당시 타오취엔리에는 녀성들의 혁명조직이 없었다.

녀성들을 조직에 묶어세우는데서 문제로 된것은 로인들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로인들은 녀성들을 세상일에 참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딸이 글 배우는것을 좋아하지 않는 한 로인부터 돌려세우기로 하시였다. 그 로인은 오래동안 앓고있었는데 긴병에 효자가 없다고 딸도 병시중을 잘 못하고있었다.

어머님께서는 그 로인의 병시중도 해주시고 원기회복에 좋다는 약도 구해다 손수 달여주시였다.

로인과 한식구처럼 지내신 어머님께서는 딸에게 글도 가르쳐주시고 노래도 배워주시였다. 나중에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왜놈들을 무리로 족치신 전투이야기도 들려주시며 혁명적으로 각성시키시였다. 그러신 다음 신파장에 가서 유격대에 보낼 신발을 사오도록 하시고 《정안군》놈들의 병력수도 알아오게 하시였다.

이 과정에 로인의 딸은 마을의 핵심녀성으로 자라났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한사람한사람 키우신 핵심들로 반일부녀회를 무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타오취엔리부녀회를 결성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우리모두는 **김일성**장군님의 해발이 됩시다.》

어머님께서는 한편 청년들을 교양하여 핵심으로 키우신 다음 그들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에 반일청년동맹도 조직하시였다.

어머님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타오취엔리에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조직들이 나오고 마을은 급속히 혁명촌으로 변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대중단체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인민들의 혁명적열의가 높아지는데 따라 인민들을 발동하여 원군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파악있는 핵심청년들을 조선인민혁명군에 보내여 입대시키시였다. 그리하여 타오취엔리에서만 해도 10여명, 샤강구일대에서는 100여명의 청년들이 입대하였다.

한편 혁명조직성원들을 발동하여 천, 지하족, 소금을 비롯한 많은 물자를 조선인민혁명군에 보내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능숙하고 정력적인 지하정치활동에 의하여 타오취엔리일대는 혁명화되고 신파통로를 개척할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되게 되였다.

하강구—우리 나라 김형직군 대안인 중국 동북지방의 창바이현 치다오거우(7도구)로부터 삼수대안인 창바이현 스우다오거우(15도구)에 이르는 지역.

구장—(일제때) 마을이나 동네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민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말단행정사업의 앞잡이노릇을 하던자 또는 그 직책.

신파지구에서의 지하정치활동

신파지구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혁명조직들과의 련계를 제때에 보장할수 있는 유리한 곳이였다.

하기에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활동하고있는 창바이땅을 마주하고있으며 혜산, 장진, 강계로 통하는 자동차도로들이 뻗어있는 신파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리고는 여기에 포대를 쌓고 수십명의 경찰을 두었으며 국경수비대와 헌병대까지 배치해놓았다.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신파공작에 힘을 넣을수 있게 뒤받침하기 위하여 최희숙선생님을 야오팡쯔(요방자)에 파견하시였다.

최희숙선생님이 도착하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타오취엔리를 비롯한 샤강구지구의 반일부녀회, 반일청년동맹, 반일소년회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그에게 맡기시고 신파공작에 힘을 넣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신파에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벌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신파통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샤강구일대의 지하조직책임자들의 모임을 가지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지대에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하여 준비된 조직성원들을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였다. 한편 조직성원들과 타오취엔리사람들을 통하여 신파일대의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압록강을 건너 신파에 나오시여 정력적인 지하정치활동을 벌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처음 신파에 나오신 날은 장날이여서 어머님께서는 장사군차림을 한 지하조직원과 함께 장보러 가는 사람들속에 섞이여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신파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어머님의 걸음은 처음부터 위험이 뒤따르는 걸음이였다.

어머님께서 신파도선장에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허줄한 농립모를 쓴 한 사람이 어머님의 뒤를 따랐다. 틀림없는 밀정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놈을 이리저리 끌고다니시다가 장마당안에서 어린애를 업고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가는 낮익은 타오취엔리녀인의 임을 날래게 받아이시였다.

밀정놈이 방금전까지 따르던 녀인을 찾느라고 헤덤빌 때 어머님께서는 재빨리 장마당을 빠져나오시였다. 이것은 신파공작의 나날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것이다.

신파장마당을 무사히 빠져나오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석전양복점으로 가시였다.

신파에 조직된 반일지하단체인 삼수공산주의자공작위원회가 바로 이 집을 거점으로 활동하고있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석전양복점 뒤방에서 그 조직의 핵심성원을 만나시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김형직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반일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이였다.

어머님께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그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전달하시였다.

그는 김형직선생님을 따를 때처럼 **김일성**장군님을 따르겠다고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의 활동을 평가해주시고나서 충분한 준비밑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고 여러가지 반일조직들도 내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준비를 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들의 동태와 무력배치정형을 알아볼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날부터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시며 수십차례 신파에 나오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보천보전투가 있은 다음 더욱 살벌해진 국경경비망을 뚫고 신파에 나오시여 조국광복회조직과 당조직결성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그해 6월 11일 석전양복점에서 비밀모임을 여시고 삼수공산주의자공작위원회 성원들을 기본으로 조국광복회 신갈파지회의 결성을 선포하시였다. 이것은 신파지구에 나온 첫 조국광복회조직이였다. 어머님께서는 6월 22일에는 석전양복점에서 투쟁속에서 검열된 신파지구핵심성원들로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직속 신파지구 당소조를 결성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신파지구의 여러곳에 비밀사업장소, 비밀련락장소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리용하시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서도 적들의 의심을 덜사는 곳을 비밀련락장소나 비밀사업장소로 정하시였다. 그런 곳으로는 광선사진관, 석전양복점, 샘물터국수집, 신파객주집, 사발상점, 물방아집 등이였다.

어머님께서는 이와 함께 신파일대의 곳곳에 꾸려놓은 아지트들을 번갈아 리용하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되면서도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의 활동에 필요한 군사정보들도 수시로 수집하여 사령부에 보내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어느날 보천보전투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려고 일제의 조선주둔 19사단소속 함흥74련대놈들이 혜산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신파지구의 모든 혁명조직들이 적들의 병력수와 움직임을 빨리 알아내도록 이끄시였다.

조직성원들은 놈들이 혜산에서 매일 낮에 한개 부대씩 압록강을 건넜다가 밤에는 몰래 다시 되돌아넘어온다는것을 알아냈다.

어머님께서는 이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눈길을 딴데로 끌기 위한 어리석은 기만작전이라고 판단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직성원들이 놈들의 진짜 강을 건늘 장소와 날자, 병력수를 알아내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적들이 70대의 자동차로 신파에 와서 어느날에 강을 건는다는것까지 다 알수 있었다.

어머님께서는 수집한 정찰자료들을 지체없이 사령부에 보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어머님께서 보내신 정찰자료를 받으시고 지엔싼봉(간삼봉)전투에서 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시였다. 그리하여 신파에서 압록강을 건너올 때에는 하루종일 걸렸던 놈들이 다시 건너갈 때에는 다리부러진 놈, 피투성이된 놈 모두 합하여 200명정도로써 반시간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타오취엔리와 신파지구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혁명조직을 보호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후방의 안전》을 떠들면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한

편 인민혁명군과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적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조직을 보호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혁명조직들이 적의 밀정, 주구놈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살피면서 지하공작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시였다.

또한 구장, 촌장, 《자위단》반장자리들을 조직성원들이 차지하게 하는 한편 조직성원들을 적기관에 적극 침투시켜 그들을 통하여 적들의 비밀을 탐지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벌리시였다.

그리하여 스싼다오거우경찰서관하에만 하여도 여러명의 조국광복회특수회원들이 침투하였고 구장, 십가장자리들도 대부분 혁명조직성원들이 차지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나날에 조직의 비밀을 지켜 희생적으로 투쟁하시였다.

1937년 8월초 타오취엔리부녀회원들이 조선인민혁명군 출판소에 보내려고 종이를 장만해두었는데《정안군》놈들의 수색과정에 발견되였다.

적들은 종이를 무엇을 하려고 감추어두었는가고 하면서 발광하였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서슴없이 그 책임을 자신이 맡아나서시였다.

놈들은 어머님의 당당한 태도와 사리정연한 대답에 말문이 막히게 되자 무작정 어머님을 체포하였다. 그리고는 가혹한 고문과 회유기만술책으로 어머님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사령부의 안전과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명도 바칠 굳은 각오를 지니시고 조직에 돈 2원과 함께 편지를 보내시였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

혁명조직에서는 성원들을 발동하여 어머님을 석방하기 위한 구출작전을 벌리였다.

경찰서장놈은 500명이 서명한 량민보증서를 작성해오면 김정숙어머님을 량민으로 인정하고 석방시키겠다고 하였다. 《불온

분자》를 량민으로 인정하는 보증서에는 아무나 함부로 손지장을 누르려 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인 대중심리였다. 놈들은 이것을 타산하였던것이다.

혁명조직에서는 200여호밖에 안되는 타오취엔리마을에서 500명이 서명한 량민보증서를 경찰서장앞에 내놓았다.

그리하여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석방되여 나오시게 되였다.

이것은 동지들과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나서신 어머님에 대한 인민들의 끝없는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때문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이처럼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정력적인 활동, 불굴의 의지로 신파일대에 강력한 지하조직망을 꾸리심으로써 혁명의 사령부와 국내혁명조직들과의 련계를 보장하고 국내깊이에 혁명조직들을 확대하는데 발판으로 될수 있는 믿음직한 통로가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시절의 김정숙어머님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김정숙동무는 타오취엔리와 신파일대에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혁명가로서의 만만치 않은 수완과 능력을 발견한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에게는 군중을 감화시키고 각성시키고 동원시킬줄 아는 비상한 솜씨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량민보증서—(일제시기) 착하고 어진 사람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보증하는 문건.

국내깊이에서의 지하공작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타오취엔리와 신파지구에서 활동하는 기간 국내깊이에까지 진출하시여 지하공작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은 도천리와 신파지구에서 활동하는 기간 백두산밀영과 삼수에도 다녀왔으며 신흥, 북청, 단천을 비롯한 동해안지구에 나가 이 지대 혁명가들과의 사업도 심도있게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26(1937)년 7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새로운 임무를 받으시고 풍산, 단천, 리원, 북청일대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지하공작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사령부통신원을 통하여 김정숙어머님에게 시급히 국내에 나가 그곳 혁명조직들과 애국자들에게 앞으로의 명확한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알려줄데 대한 새로운 임무를 주시였다. 그리고 흩어져 활동하는 사람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고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밀고나갈데 대한 과업도 주시였다.

적들의 폭압이 날로 심해지는 조건하에서 이 과업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사령부전령병인 김봉석선생님 그리고 한 녀대원과 함께 풍산땅에 이르러 천도교인들과의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풍산에서 한 대원의 안내와 소개로 김정숙어머님을 만난 풍산천도교책임자는 천도교인들의 모임을 열었다.

모임이 끝난 후 천도교책임자는 모임참가자들에게 김정숙어머님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천도교인들에게 보내주신 특사라고 정중하게 소개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전달하시고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은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일제와 싸우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관계없이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조국광복회를 내오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천도교인들과 온 민족을 튼튼히 묶어세워 단결된 힘으로 일제를 때려부시자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님의 말씀에 모임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도량이 대해처럼 넓으신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조선의 진정한 한울님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싸워나갈것을 다짐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단천, 리원, 북청 등지에 나가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있는 반일애국투사들을 만나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어머님께서 만나셔야 할 단천농민폭동을 주도한 리주연과 애국렬사 리준의 아들 리용 그리고 리영선생님 등은 항시적으로 일제경찰의 감시를 받고있는 요시찰대상들이였다. 그들은 걸어온 행로는 서로 달랐으나 옳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황해왔으며 이때에 와서는 투쟁의욕과 용기마저 잃고있었다는 점에서는 서로 같았다.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림기응변의 지략으로 적들의 경계망을 뚫고 그들을 각각 만나 국내투사들에게 보내시는 수령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들을 투쟁의 길로 이끌어 주시였다.

리주연선생님은 그때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단천군 송파리의 도덕사 승방에 누워있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김일성**장군님의 지시로 선생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그는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 같지 않게 벌떡 일어나앉았다. 그러면서 장군님께서 하찮은 자기에게 공작원을 보내주시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고 하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어머님께서 리용, 리영선생님들을 만나시였을 때 그들은 어머님으로부터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이제는 앞길이 환히 보인다고 하면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비장한 결의를 다지였다.

그후 그들모두는 일제의 폭압속에서도 혁명투쟁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갔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해 8월에 주신 임무를 받으시고 국내정치공작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김정숙어머님에게 통신원을 보내시여 국내에 나가 백두산밀영과 사자봉밀영회의들에서 제시된 새로운 활동방침과 사령부의 의도를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 혁명조직들에 전달해주고 그들의 사업을 지도할데 대한 임무를 주시였다.

어머님께서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녀와야 할 지대는 랑림, 부전, 신흥을 거쳐 단천, 허천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였다.

그런데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적들에게 체포되시였을 때 받은 고문으로 하여 사실상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 계시였다.

통신원은 사령부에 가서 실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겠으니 어머님께서 몸조리를 한 다음 떠나시든가 아니면 다른 동무들을 보내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사령관동지께서 믿고 과업을 주시였는데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여 다른 동무에게 맡긴다면 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참된 혁명전사라고 말할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삼엄한 적진을 뚫고 천여리 머나먼 국내정치공작의 길에 오르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량림군 인산리에서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들을 만나 사업하신 다음 옥련산의 부전령비밀근거지밀영에 나가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곳에서 활동하는 소부대성원들을 만나 백두산근거지를 량림산줄기와 부전령일대에로 확대할데 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고 근거지를 더 잘 꾸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이 일대의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을 만나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하고 생산유격대를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신흥지구비밀근거지를 잘 꾸리는 사업에 특별히 힘을 넣으시였다.

그것은 이곳이 로동계급이 집중되여있는 함흥, 흥남지구와 가까이 있고 국내 종심깊이에 자리잡은 비밀근거지이기때문이였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꾸려놓은 밀영들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꾸릴 밀영위치를 잡아주시였다. 그리고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소조성원들의 모임을 여시고 신흥지구비밀근거지가 가지는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에 머물지 않으시고 신흥탄광마을에 내려가시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시였다.

또한 신흥탄광지구, 흥남지구에서 활동하는 혁명조직책임자들을 만나시여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신흥지구에서 사업을 마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홍원에서 정치공작원을 만나시고 북청, 리원, 단천을 거쳐 9월 중순 타오취엔리에 도착하시였다.

통신원으로부터 어머님께서 그동안에 벌리신 정치공작정형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26(1937)년 10월 중순 지하공작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벌리신 지하정치활동은 전국적범위에서 당 및 조국광복회조직을 늘이고 전체 인민이 떨쳐나 싸울 준비를 성숙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그리고 가장 능숙하고 세련된 지하공작원으로서의 어머님의 숭고한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준 의의깊은 활동이였다.

이렇듯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위축되였던 국내혁명조직들과 그 성원들은 대오를 수습하면서 혁명투쟁을 더 힘있게 벌려나갔다.

천도교－19세기 중엽에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종교.
리념은 인내천(사람이 곧 하늘이다), 보국안민(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이다.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300만의 교인들을 포섭하고있던 전국적인 종교단체였다.

4.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 옹호고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7(1938)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난파이쯔(남패자)에서 력사적인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시급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지대에로 나가며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방침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부대와 함께 압록강연안국경일대에로의 행군길에 오르시였다.

고난의 행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진 시련과 난관으로 이어져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행군길에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련속되는 전투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어머님께서는 7련대 저격수들과 함께 대렬의 뒤에서 행군하시면서 눈속에 매복해계시다가 나타나는 적들을 명중사격으로 족치시였다. 때로는 행군대오가 지나간 눈길에 수류탄지뢰를 묻어 추격해오는 적들을 무리로 쓸어버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여 한달동안에만도 여러 전투들에 참가하시였다. 그때마다 어머님께서는 재빠른 전투행동과 명중사격으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강한 의지와 희생적인 노력, 뜨거운 동지애로 대원들을 이끌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계속되는 전투와 행군으로 자신의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우시였으나 식량이 떨어져 굶주리는 대원들을 위하여 무진애를 쓰시였다.

행군하다가 쉴 때면 묵은 풀잎과 마른 열매를 거두시였고 눈속을 헤치며 풀뿌리를 캐시였다. 풀죽을 쑤다가 적들이 달려들면 펄펄 끓는 죽가마를 백포에 싸들고 달리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하시였다.

어머님의 헌신적투쟁은 대원들에게 애로와 난관을 승리적으로 헤쳐나갈수 있는 정신적힘을 안겨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난파이쯔를 떠나 창바이현 치다오거우치기에 이르렀을 때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녀대원들과 함께 칭봉밀영에 들어가 부상자들과 병약자들을 돌볼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였다.

부대와 헤여지게 되자 어머님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에 대한 걱정이 무겁게 드리웠다.

어머님께서는 친히 간수하시였던 한홉의 미시가루를 전령병에게 넘겨주시면서 정 요긴할 때 사령관동지께 드려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그리고 경위중대원들의 손을 잡으시고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부탁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녀대원들과 함께 칭봉밀영으로 떠나시였다.

어머님께서 칭봉밀영에 이르시였을 때 그곳 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밀영책임자 엄광호는 식량도 마련해놓지 않고 예비병실 하나 제대로 지어놓지 않았다. 더우기 밀영생활은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병실부터 꾸리면서 밀영생활에서 정연한 질서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추운 겨울이였지만 녀대원들을 발동하여 자체의 힘으로 병실을 꾸려나가시였다. 그러시고는 대원들에게 난파이쯔회의에서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과 국경일대로 진출하면서 이룩한 주력부대의 전과를 이야기해주시였다. 또한 밀영생활에서 무질서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원들을 일깨워주는 사업도 짜고드시였다.

주체28(1939)년 2월초 어느날 밀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난파이쯔회의에서 하신 연설에 대한 학습토론이 진행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헐뜯으려는 혁명의 배신자와 강하게 투쟁하시였다.

밀영책임자인 엄광호는 토론에서 올겨울과 같이 정세가 불리할 때는 적들을 맞받아 싸우는것을 피하고 일단 물러서서 유리한 정세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지어 이자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국경일대로 나가는것을 무모한 행동이라고 시비중상하였다.

엄광호의 발언은 참으로 엄중한것이였다. 그러나 당시의 형편에서 그자와 사상투쟁을 벌린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토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에 어긋나는 이자의 허튼 소리를 여지없이 분쇄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난파이쯔회의에서 내놓

으신 방침과 그 의의를 분석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혁명투쟁에서 객관적정세를 절대화할것이 아니라 제기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헤쳐나가야 하며 보다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계속하여 정세가 불리하다고 국경연안으로 진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에 어긋나는 불건전하고 위험한 견해라고 까밝히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사령관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자 엄광호는 련대군수관이고 밀영책임자라는 직권을 악용하여 제놈의 정체를 가리워보려고 어머님께 압력을 가하였다. 나중에는 《간첩단사건》을 날조하여 어머님을 비롯한 일부 대원들을 《간첩》혐의자로 몰아 체포하고 악착한 고문까지 들이댔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간첩조직》의 내막을 밝히라고 따지고드는 엄광호에게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다.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다. 너는 누구냐. 너는 혁명의 원쑤다. 혁명은 네놈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똑똑히 기억하라. 너는 혁명앞에 지은 죄로 하여 처단을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자 엄광호는 미친듯이 날뛰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믿고 서슬이 딩딩해서 날뛰는가, 주력부대는 눈속에서 다 얼어죽었다라고 지껄이면서 변절자의 본색을 드러내놓았다.

어머님께서는 함께 갇혀있는 녀대원에게 사령관동지의 혁명로선까지 공개적으로 헐뜯는자가 무슨 일인들 가리겠는가고 하시며 이 사실을 사령부에 알리기 전에는 죽을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칭봉밀영에서 일어난 사실을 사령부통신원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신원을 통하여 칭봉밀영에서 있은 사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것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엄광호는 그해 4월 베이다딩쯔(북대정자)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헐뜯고 외곡한 엄가놈의 죄행을 단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높은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하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헐뜯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때 김정숙동무가 앞장에 서서 엄광호의 패배주의를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사령부의 로선이나 작전적방침과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하지 않고 견결하게 투쟁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상론자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헐뜯으려는 혁명의 배신자들과 단호한 투쟁을 벌리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칭봉밀영에서 벌리신 반혁명적인 사상경향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고 준엄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로 되였다.

5. 무산지구진공작전 참가, 백두산동북부와 두만강연안 북부조선일대에 혁명의 보루를 꾸리기 위한 활동

무산지구진공작전 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8(1939)년 4월 베이다딩쯔에서 여신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에서 고난의 행군을 총화하시였다. 그리고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넘어가 일제놈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가하며 또다시 조국으로 진군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먼저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 적들의 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춘기반격전을 벌렸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 춘기반격전에 참가하시여 불멸의 위훈을 세우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그해 4월 중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춘기반격전에 참가하시여 적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시였다. 그때 진행된 전투는 츄자디엔(구가점)전투, 스얼다오거우(12도구)전투, 스쓰다오거우(14도구)전투, 스우다오거우(15도구)전투, 반지에거우(반절구)전투 등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춘기반격전에 이어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여 무산지구에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그해 5월 5호물동으로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들어섰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활짝 핀 진달래꽃가지들을 정히 꺾어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진달래꽃묶음을 드시고 **《조선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습니다!》**라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대원들의 가슴을 조국애로 불타게 하였다.

5호물동을 떠나 사철푸른바늘잎나무들이 덮여있다고 하여 청봉이라고 부르는 곳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에 숙영명령을 내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작식터와 샘물터까지 마련해놓으신 다음 대원들과 함께 나무껍질을 벗기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일어나라, 단결하라, 전세계 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를 비롯한 혁명적인 구호들을 쓰시였다.

어머님께서 쓰신 구호들은 눈비에도 씻기지 않고 오늘도 우리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청봉을 떠나 건창, 베개봉에서 각각 하루밤씩 숙영한 다음 삼지연못가에 이르러 점심식사를 하였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삼지연의 맑은 물을 정히 떠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물을 드시고나서 말씀하시였다.

《삼지연은 경치도 좋고 물맛도 좋습니다. 이 물을 량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합시다.》

어머님께서는 못가를 떠나기 아쉬워하는 녀대원들에게 오늘은 비록 우리가 삼지연을 떠나지만 조국을 해방한 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풍치아름다운 이 호수가를 다시 찾을 날이 올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삼지연을 떠나 무산지구에 이르시여 신사동인민들속에서 여러가지 정치사업을 진행하시였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한 목재소로인의 집을 찾으시고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생활을 걱정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김일성**장군님을 한번 만나뵙게 해달라는 로인의 간절한 청을 받으시고 그를 장군님께 안내하여 로인의 평생소원을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뵙게 된 로인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면서 남은 여생이라도 조국해방위업을 위해 바치겠다고 거듭 말하였다.

이렇듯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굳게 믿고 나라찾는 싸움에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대홍단전투에 참가하시여 용감히 싸우시였다.

주체28(1939)년 5월 23일 새벽 어머님께서는 녀대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지휘처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매복하시였다.

날이 밝을무렵 7련대가 행군해오는 대렬의 200여m 뒤로 수백명의 적들이 짙은안개를 리용하여 은밀히 뒤따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련대로 하여금 부대가 매복해있는 지점을 그냥 지나도록 하시고 적들이 매복권안에 들어섰을 때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기여드는 적을 미리 조준하고있다가 첫방부터 명중탄을 안기시였다.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신 어머님이시였지만 조국땅에 나와 진행되는 전투에 참가하신것은 이때가 처음이였다.

어머님께서는 탄띠의 총알이 다 없어지자 옆에 있는 녀대원의 예비탄알까지 가져다가 사격을 계속하시였다.

겨우 살아남은 적들은 국사당언덕으로 퇴각하다가 증원부대와 함께 또다시 덤벼들었다.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새초밭에서 움쭉 머리를 쳐드는 놈마다 명중탄을 안기시였다.

이날 전투에서 적들은 수백명이나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전투가 승리적으로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물자운반에 따라나선 200여명의 목재소로동자들을 인솔하여 두만강을 건늘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였다.

운반대가《갑무경비도로》근처에 이르렀을 때 기본부대와 운반대사이에 적들이 끼여들었다.

어머님께서는 녀대원들에게 아직 적들이 유격대를 발견하지 못한것만큼 덤비지 말라고 하시며 로동자들을 숲속에 은폐시키는 한편 신속히 매복위치를 차지하고 불의에 답새기도록 하시였다.

적들은 또다시 무리죽음을 당하고 얼마 남지 않은자들을 그러모아가지고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어머님께서는 그날 밤 로획물자를 지고 따라온 로동자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오락회를 조직하시여 그들을 즐겁게 하여주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축지법에 대한 이야기와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에 대하여 실감있게 해설해주시면서 조국의 해방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이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무산지구진출의 나날에 군사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리심으로써 국내혁명운동을 앙양시키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백두산동북부와 두만강연안 북부조선일대에 혁명의 보루를 꾸리기 위한 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무산지구전투가 있은 후 주체28(1939)년 5월 안투현 큰골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려 이 일대에 혁명의 보루를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두산동북부 우치강(올기강)남쪽 두만강연안일대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벌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두만강연안일대를 혁명화할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고 우치강남쪽 두만강지대로 나오시였다.

이 지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로 진출하는데서 다리와 같은 위치에 놓여있었다. 그리고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국내에로 넓혀나가는데서 믿음직한 발판으로 될수 있는 곳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무엇보다 안투현 둥징핑(동경평)집단부락 《자위단》원들속에 대담하게 들어가시여 그들을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리시였다.

둥징핑은 두만강가에서 10리가량 떨어져있는 집단부락이였는데 이 마을 청년들은 대부분 놈들의 《자위단》에 망라되여있었다.

어느날 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몇명의 대원들과 함께 집단부락 서쪽성문에서 조금 떨어져있는 촌장네 집에 이르시였다. 그날 밤 그 집 웃방에는 혁명조직성원인 촌장이 혁명군의 활동에 지장이 될가봐 모여놓은 《자위단》원들이 있었다.

이것을 알리 없는 그 집 녀인은 한밤중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자 몹시 당황해하였다.

어머님께서는 녀주인으로부터 모여있는 《자위단》원들이 모두 가난한 농사군의 아들들로서 일제놈들의 강요에 못이겨 나무총을 메고 경비에 나온 청년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벌릴것을 결심하시고 인기척을 내시며 웃방문을 여시였다.

한밤중에 군복을 입은 녀성군인이 불쑥 나타나자 《자위단》원들은 깜짝 놀랐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방안을 여유있게 훑어보시고나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령솔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여러분들과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위단》원들은 여전히 긴장하여 움직일줄 몰랐다.

어머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같이 가난한 인민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는 비록 여러분이 《자위단》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쑤들의 강박에 의한것이지 마음이 있어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그들은 점차 긴장을 늦추고 어머님을 지켜보았다.

어머님께서는 이국땅에 와서까지 말못할 고생을 다하는 그들의 피눈물나는 처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잠에서 깨여나 더는 자기 조국과 인민을 반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이 갈 길은 오직 한길, 혁명의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님의 말씀에 량심적가책을 받은 한 청년이 우리모두는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서 할수없이 왜놈들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죄스럽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다른 청년들도 더는 왜놈들의 노예로 살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혁명군을 도와나서겠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두 마을에 달려가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 김정숙어머님을 따라나섰다. 그후 둥징핑마을을 혁명화하는데서 그들이 앞장에 섰다.

이 소식은 다른 마을에 사는《자위단》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적들의 《자위단》조직과 운영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정치군사활동을 벌리는데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어 허룽(화룡)현 곧은골어귀에 있는 여러채의 농막주인들을 교양하여 이곳을 국내와의 련계를 보장하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였다.

농막주인들은 두만강건너 조선땅에 살면서 땅이 없어 농사철에 강을 건너와 농사를 짓는 조선농민들이였다.

어머님께서는 그들을 교양하여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시였으며 농막들이 국내와의 련계를 보장하는 거점이 되게 하시였다.

특히 매골부근 두만강물동가까이에 있는 농막주인과 물동지기를 교양하시여 도강보장의 담당자로 키우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국내혁명조직들을 믿음직하게 련결시켜주는 두만강통로가 열리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받들고 무산, 연사지구에 여러차례 나오시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주체28(1939)년 6월 중순 매골부근 두만강물동에 오시여 국사봉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국내에 나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전을 보장해드리시였다.

하순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부대와 함께 조국땅 삼하덕(오늘의 함경북도 무산군 삼장로동자구)에 안전하게 나오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때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삼장일대의 적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며 이곳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할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였다.

당시 삼장은 국경의 면소재지로서 경찰과 수비대 등 많은 병력이 집중되여있는 곳이였다.

어머님께서는 산나물을 캐러가는 녀인의 차림으로 삼장에 들어가시여 경찰서와 수비대의 인원수와 움직임을 정찰하시였다.

적들은 그때 자동차를 준비한다, 무기를 끌어내온다 하며 법석이였다.

어머님께서는 놈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사령부가 진출하는 방향으로 급히 출동할 준비를 서두르고있다는것을 알아내시였다.

적들이 그쪽으로 출동하면 사령부에 위험이 미칠수 있었다.

어머님께서는 지하조직원들을 통하여 삼장의 두만강건너편 산등성이에 조선인민혁명군이 100명씩 세패로 나뉘여 당장 삼장에 쳐들어올 태세를 갖추고있다는 소문을 내돌리도록 하시였다.

이 말은 밀정놈들을 통하여 적들에게 알려지게 되였다.

얼마전에도 우치강전투에서 무리로 녹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고있던 놈들은 출동을 포기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찰자료를 가지고 유유히 부대로 돌아오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28(1939)년 6월말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두만강을 건너 연사지구에 나가 활동할데 대한 긴급임무를 받으시였다.

이 시기 북부조선일대를 혁명의 보루로 꾸리는 사업은 무산, 연사지구에서 활동하던 리동걸선생님의 체포로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김정숙어머님께 빨리 연사지구에 나가 실태를 알아보고 이미 꾸려놓은 혁명조직들을 보호하고 늘일데 대한 임무를 주시였다. 그리고 여러 혁명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조직체계를 세울데 대한 임무도 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엄호조와 함께 또다시 국내에 진출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삼하령숙영지에 나오시여 연사지구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을 만나 혁명동지를 믿는 원칙에서 조성된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시였다. 다음날 사지평에 가시여서는 연사지구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조국광복회책임자들의 회의를 여시고 이미 조직된 조국광복회지회와 분회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조국광복회 연사지구위원회를 무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핵심들로 연사지구당위원회를 조직하시였다.

그리하여 여러 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해 8월에도 7련대의 한 소부대와 함께 선발대로 무산, 연사지구에 나오시여 활동하시였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내에 나오시여 지도하시게 될 회의준비와 적정탐지, 경계조직을 짜고드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두만강연안일대는 혁명화되였으며 백두산동북부일대를 혁명의 보루로 튼튼히 꾸리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6.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결사관철,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목숨으로 보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결사관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시였던것처럼 백두산동북부에서 활동하시는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한 녀대원의 병치료를 맡아할데 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삼장, 연사지구에서 활동하시다가 우다오양차(오도양차)밀림속에 이르신것은 주체28(1939)년 7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어머님께 장철구선생님의 병치료를 맡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숙동무! 한 혁명동지의 생명을 동무에게 맡기려 하오. 부대가 련일 간고한 전투와 행군을 하고있는 형편에서 열병에 앓아누운 녀대원을 안전하게 치료할수가 없소.

정숙동무가 여기 남아서 그를 잘 돌봐줘야겠소. 그도 정숙동무와 함께라면 남겠다고 하오. 나는 동무가 모든 정성을 다해 꼭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리라고 믿소.》

장철구선생님은 뜻밖에 풍을 만나 한팔을 쓰지 못하는데다가 열병까지 겹쳐 자주 의식을 잃으며 앓고있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계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철구선생님을 치료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을 때 《사령관동지! 제가 떨어지겠습니다.》라고 하시며 서슴없이 받아안으신것이였다.

어머님께서는 이제부터 밀정놈들이 유격대를 찾아헤매는 수림속에서 병마와 원쑤들로부터 혁명동지를 구원하고 지켜야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굳은 결심을 지니시고 혁명동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컴컴한 수림속을 누비고 비탈과 골짜기, 벼랑을 톺으시며 송진과 가문비진을 긁어다가 불에 녹여 환자의 부어오른 팔과 손등에 붙여주시였다. 그리고 열내림에 쓰는 산열매와 약초들을 뜯어다 밤새 달여서는 환자의 입에 떠넣어주시였다.

밤에는 지친 몸이였으나 환자의 곁에 지켜앉아 찜질을 해주고 팔다리를 주물러주군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지성으로 환자의 병세는 점차 나아지기 시작하였다.

두주일가량 지났을 때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령병과 함께 밀가루와 콩기름 등 부식물을 가지고 초막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자의 치료정형을 알아보신 다음 그에게 병과 싸워이기려면 의지가 강해야 한다고 하시며 빨리 병을 치료하고 부대에 돌아가 적과 싸우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병을 잘 치료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김정숙어머님께 혁명가 한사람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다고 하시며 철구어머니를 꼭 구해내리라고 믿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였다.

그런데 환자의 병세가 좋아지던 어느날 밤 폭우가 쏟아져내리면서 세찬 비바람이 불어 초막지붕이 날아났다. 쏟아지는 비발과 세찬 바람속에서 환자는 떨기 시작하였다. 잘못하면 환자의 병세가 처음상태로 되돌아가거나 더 위험해질수 있었다.

어머님께서는 지체없이 옷을 벗어 환자에게 입혀주시고 자신의 담요까지 씌워주시였다.

그러나 퍼붓는 비를 막을수 없었다.

어머님께서는 환자를 꼭 껴안으시고 몸으로 폭우를 막으며 나직이 혁명가요를 부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신대로 강한 의지를 가져야 병마와 싸워이길수 있다고 하시면서 환자를 격려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이처럼 뜨거운 지성에 의하여 환자는 마침내 병을 이겨내고 대오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약속하신 날을 어기지 않으시고 대원들과 함께 초막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완치되여 깨끗한 군복차림으로 서있는 장철구선생님과 나란히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는 김정숙어머님의 얼굴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완치되여 인사를 올리는 녀대원과 임무를 수행하신 김정숙어머님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맞아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동무들은 어려운 전투를 이겨내였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대부대선회작전에 필요한 600벌의 겨울군복을 만들데 대한 임무도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당시 일제는 날로 확대강화되는 혁명력량을 없애보려고 수십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대규모적인《토벌》작전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주체28(1939)년 10월 안투현 량쟝커우(량강구)에서 백두산동북부의 넓은 지역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겨울철에 벌릴 이 작전을 위해서는 겨울군복을 시급히 만들어야 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해 가을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부대의 작전에 필요한 겨울군복을 한달동안에 만들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였다.

몇명 안되는 재봉대원들로 변변한 재봉도구도 없이 한달동안에 600벌의 군복을 만든다는것은 보통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새 임무를 받아안은 그 시각부터 어떻게 하면 겨울군복을 하루라도 더 빨리 만들어내겠는가 하는 한가지 생각만을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녀대원들을 군복제작전투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군복천과 재봉기를 가지고 재봉대밀영에 도착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작업장을 꾸려놓고 기다리는 녀대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리로 오면서 이런걸 생각했어요.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열흘 앞당겨 스무날동안에 해낼수는 없겠는가 하고 말이예요.》

녀대원들은 깜짝 놀랄뿐 미처 대답을 못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겨울군복을 제작하는것이 동기작전의 성과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해설해주시면서 그 관철에로 녀대원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제일 먼저 호응해나선것은 재봉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최희숙선생님이였다. 그러자 다른 녀대원들도 한결같이 호응해나섰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날자별로 군복제작량을 정하고 작업공정을 흐름식으로 빈틈없이 짜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런 준비밑에 밤낮이 따로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려나가시였다.

군복제작의 기본공정인 재봉작업을 맡으신 어머님께서는 낮에는 재봉기를 돌리시고 밤에는 다른 대원들의 밀린 일감을 도우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녀대원들이 곤히 잠든 다음에도 조용히 일어나시여 광솔불을 켜시고 소리를 내지 않고 할수 있는 시침을 하거나 단추구멍을 내는 등 밀린 일을 하시였으며 새벽에는 아침밥을 지으시였다.

군복제작전투가 계속됨에 따라 녀대원들은 지치고 피로에 몰리기 시작하였다. 제일 참기 어려운것은 밀려드는 졸음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때마다 작업장이 울리게 혁명가요를 부르시였다.

재봉대원들도 졸음에서 깨여나 어머님을 따라 노래를 부르며 일손을 다그쳤다.

20일이 거의 되였을 때에는 600벌의 군복제작이 마감단계에 이르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재봉기바늘의 귀가 터졌다. 하나밖에 없는 바늘이다보니 너무 닳았던것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시간을 지체시킬수 없으시여 바늘귀에서 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한손으로 조절하며 그냥 재봉기를 돌리시였다. 어머님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하였으나 훔칠 겨를이 없어 최희숙선생님이 옆에서 땀을 씻어드리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실천적모범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봉대원들은 마침내 20일만에 군복제작과업을 완전히 끝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겨울군복제작을 열흘이나 앞당겨끝내고 돌아온 김정숙어머님과 녀대원들을 반가이 맞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군복제작을 앞당겨 끝냈기때문에 부대가 아무런 지장도 없이 여유있게 새 작전의 길에 오를수 있게 되였다고 그들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기어이 수행하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목숨으로 보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항일혈전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신변안전과 안녕을 목숨으로 지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언제나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것이 조선혁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신변보위사업을 첫째가는 임무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시고 수령님의 안녕을 목숨으로 지키시였습니다.》

일제는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완전소멸》하려고 발악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적들간에는 매일같이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시고 이 모든 전투들을 앞장에서 지휘하시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조선혁명가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위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임무로 나섰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대부대선회작전과 분산활동때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홍치하(홍기하)전투때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보위하시였다.

주체29(1940)년 3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마루거우(대마록구)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검질기게 따라오는 적들을 홍치하골짜기에 몰아넣고 족쳐버릴 결심을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홍치하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량쪽 산릉선에 매복하였다가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섬멸전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한무리의 적들이 사령부가 자리잡은 동쪽고지릉선에 나타났다.

적들을 족치며 사령부주변을 예리하게 살피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놈들을 발견하자 적들을 향해 총을 쏘시면서 사령부와 다른 방향의 릉선을 타고 달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단 한놈의 적도

사령부에 접근하게 해서는 안되며 단 한알의 적탄이라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쪽으로 날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적들을 자신께로 유인하며 달리시였다.

사령부와 퍼그나 먼 지점에 이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름드리나무에 의지하여 미친듯이 달려오는 적들에게 백발백중의 명중사격을 가하시였다.

사령부의 뒤릉선에서 울리는 총소리를 듣고 대원들이 달려왔을 때 이미 총소리는 멎고 어머님께서는 산아래에서 올라오고계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대원들을 만나자《안심들하세요.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사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김정숙어머님의 배낭에 얹힌 양재기에는 총알자국이 두개나 나있었다. 적들을 유인하며 달리실 때 맞은 자리였다.

대원들은 양재기에 난 탄알자국에서 그 위험천만하였던 순간을 새겨보고있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에 미칠번 한 위험을 가시였다는 안도감에 넘쳐《사령관동지께서는 무사하십니다.》라는 한마디 말씀만 되뇌이실뿐이였다.

홍치하전투에서 녹아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소멸하려고 더욱 미쳐날뛰였다. 화라쯔(화라즈)골짜기에는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적《토벌대》가 집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주체29(1940)년 4월 안투현 화라쯔에서 있은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고 분산활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분산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있은 다사하치기(대사하치기)전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안전을 목숨으로 지켜내시였다.

주체29(1940)년 6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주력부대의 한 대오는 샤오하얼바령(소할바령)을 향해 행군하던중 안투현 다사하치기에서 일제의 가장 악질적인 괴뢰무장집단인 안투현《신선대》놈들과 맞다들게 되였다.

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오를 친솔하신다는것을 알고 미친듯이 덤벼들었다.

순간에 정황을 판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창을 뽑아드시고 대원들에게 고지에로의 반돌격을 명령하시였다.

힘찬 나팔소리와 함께 대원들은 재빨리 고지에 올라 불의의 습격을 시도하던 적들에게 반공격을 들이댔다.

적들은 녹아나면서도 물러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달려들어 전투는 더욱 치렬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중턱바위우에서 달아오른 싸창을 틀어쥐신채 전투를 지휘하고계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곁에서 정황을 살피시며 호위임무를 수행하시였다.

그런데 대여섯놈의 적들이 무성한 갈발속에 몸을 숨기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은밀히 접근하여 총구를 쳐드는것이였다.

어머님께서는 그 위기일발의 순간《사령관동지!》하고 다급히 웨치시며 번개같이 몸을 솟구쳐 온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막아나서시였다. 동시에 싸창을 들어올리시며 방아쇠를 당기시였다.

야무진 총성과 함께 앞의 놈이 총을 떨어뜨리며 쓰러졌다. 뒤이어 또 한방의 총소리가 울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머님의 어깨너머로 쏘신 총소리였다.

어머님께서는 연거퍼 적들을 쏴갈기시였다.

갈밭쪽으로 기여들던 적들은 잠간사이에 전멸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전은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여 막아나서신 김정숙어머님에 의하여 믿음직하게 보장되였다.

전투마다에서 높이 발휘하신 김정숙어머님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고귀한 희생정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가 지녀야 할 충실성의 빛나는 귀감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 일을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날 김정숙이 아니였더라면 큰일이 일어날번 했습니다. 그는 몸으로 나를 막아서며 달려드는 적들을 모조리 쏴갈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렇듯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철저히 보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상한 판단력과 김정숙어머님의 희생적인 투

쟁으로 사령부를 해치려던 적들의 기도는 분쇄되고말았다.

간악한 원쑤의 총구앞에 서슴없이 가슴을 내대시며 한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고 성새가 되시였던 김정숙어머님의 충실성에 받들려 위대한 수령님의 안전은 믿음직하게 보위되고 조선혁명은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의 위훈은 천만대를 두고 칭송해도 못다할 불멸의 업적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오늘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이어져 그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옹호보위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혁명의 보루－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이나 침습을 막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혁명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거점.

《신선대》－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일제침략자들이 1930년대 후반기에 만들어낸 《특설부대》. 《신선대》란 《하느님이 선발한 대오》라는 뜻으로서 일제침략자들이 오래동안 주구로 길러낸 《특설부대》에 붙여준 상징적인 이름이였다.

제3장.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활동 전개

〔주체29(1940). 8－주체34(1945). 8〕

1.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9(1940)년 8월 샤오하얼바령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정세는 우리들에게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면서 모든 대원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키우며 우리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내놓으시였다.

그리고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넘어갈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가 끝난 후 사령부직속 소부대를 친솔하시고 새로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소부대에 망라되여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였다.

이 나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보장하시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숭고한 지성을 바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사령부의 작식을 보장하는것을 혁명전사의 숭고한 임무로 여기시고 언제나 그 임무에 충실하시였다.

치렬한 전투와 행군이 끝없이 이어지고 적들의 《토벌》이 날로 심해지는 때 사령부의 식사를 제대로 보장한다는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에 조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시고 사령부의 식사보장에 모든 정력을 다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끼니를 번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쌀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감자를 구해다 농마를 내여 지짐을 부쳐드리시였다. 어느날 작식대의 가마가 못쓰게 되였을 때에는 밀가루꼬치떡을 구워드리시였다. 때로는 잣을 까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기도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식찬을 한가지라도 더 마련해드리시려고 무진애를 쓰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어쩌다 생기는 고기와 희귀한 부식물을 샘물이나

눈속에 정히 보관하시였다가 요긴한 때 쓰시였다. 어떤 때에는 고추장도 마련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갖 지성을 다하시였다.

1940년 초겨울 소부대는 훈춘부근에 이르러 숙영하게 되였다.

숙영명령이 내리자 련속되는 전투와 행군에 지친 대원들은 우등불결에서 곧 잠들어버렸다.

어머님께서는 이 시각에 위대한 수령님의 옷을 빨아 우등불에 말리우고계시였다.

그런데 갑자기 적들이 나타나 소부대는 또다시 행군길에 오르게 되였다.

어머님께서는 젖은 옷을 자신의 몸에 품고 살을 에이는듯 한 추위와 사나운 찬바람을 이겨내시며 행군하시였다.

다음숙영지에 이르신 어머님께서는 깨끗이 손질한 마른 옷을 개여들고 사령부천막안으로 들어가시였다. 그때 어머님의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깨끗이 손질한 마른 옷과 추위에 언 김정숙어머님의 얼굴을 보시고 낮으나 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누가 동무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소?!》

어머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자리에 서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음성을 낮추시고 나를 위한 동무의 정성에는 나도 머리를 숙인다, 그것만은 늘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동무가 어쩌자고 그런노릇을 하는가, 그러다가 촉한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할텐가, 동무가 자기를 희생한 값으로 내가 덕을 보게 된다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그때의 심정에 대하여 너무나 얼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그를 보니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생전에 우리 어머니도 해보지 못한 일을 그가 했다는 생각을 하니 나로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도 해주지 못한 일을 스스로 걸머지고 나서서 자신을 희생시킨 김정숙의 동지애,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기 사령관에 대한 혁명적인 동지애

인 동시에 인간 **김일성**에 대한 뜨거운 정이기도 하였습니다라고 회고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놈들과 싸우시던 항일의 나날 어머님께서 만들어올리신 명주솜외투를 입으신적도 있으시였다.

그 명주솜외투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총알이 명주솜을 뚫지 못한다는것을 아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줌 두줌 모아두시였다가 여러 밤을 새워 지으신것이였다.

명주솜외투뿐아니라 털양말과 배띠개에 이르기까지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지 않은것이 없었다.

그때는 실 한토리, 천 한쪼박, 바늘 하나도 얻기 힘든 때였다.

그래서 한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털실은 어데서 구했는가고, 정숙동무한테는 털양말이 있는가고 물으신적까지 있으시였다.

그때 김정숙어머님께서는《장군님은 큰일을 하시는분이니 그런건 몰라도 됩니다.》라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 바치신 뜨거운 지성은 신발깔개에도 깃들어있었다.

주체30(1941)년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진출의 길에 오르시게 되였다.

어머님께서는 적들의 준동이 심한 때에 국내에로 진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그 무엇인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신발깔개를 만들어올릴 생각을 하게 되시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머리카락을 솎아 신발깔개를 만들어 위대한 수령님의 신발에 깔아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타향에서 봄을 맞으시며 찍으신 사진을 보시면서 그때를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은 다른 녀대원들과 꼭같이 중발머리를 하고다녔다고,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머리모양새를 도저히 알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부대를 데리고 국내로 나가기 위하여 훈춘땅을 지나가는데 발이 후끈후끈하여 신발을 벗어보니 그 바닥에 머리칼로 만든 깔개가 깔려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불보다 뜨거운 지성이 있었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과 안녕은 그토록 어려운 속에서도 철저히 담보되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보장해드리는것을 모든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참다운 친위전사의 귀감이시였다.

2. 필승의 신념과 자주적립장을 고수하기 위한 활동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속에서 필승의 신념과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샤오하얼바령회의방침에 따라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간 이후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1941년 4월 이전 쏘련과 일본사이에 중립조약이 체결되고 6월에는 파쑈도이췰란드가 쏘련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다. 그해 12월에는 일본이 미국과 영국을 반대하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쏘련이 일본제국주의와 중립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쏘련을 바라보며 싸우던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주었다.

일부 대원들속에서는 우리 혁명의 앞날에 대하여 우려하며 비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는 사상이 확고하지 못하고 필승의 신념이 뚜렷하지 못한것과 관련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대오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필승의 신념과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교양할것을 요구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쏘일중립조약이 체결된 직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필승의 신념과 확고한 자주적립장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쏘일중립조약이 체결된 때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훈련기지를 떠나 머나먼 원정의 길에 오르신 때였다.

일부 지휘성원들이 불안해하면서 수습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포착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지휘관들과 마주앉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자기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머님께서는 큰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라를 찾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사대의존사상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언제 남을 믿고 혁명을 시작했으며 남의 힘에 의존해서 혁명을 하였는가, 오직 장군님을 따르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고 무장시켜 강대한 일제침략군대와 대결하고있다, 우리가 혁명에서 승리하려면 사령관동지의 말씀대로 사대의존사상을 버리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후에도 어머님께서는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을 거듭 만나시여 쏘일간의 가셔질수 없는 모순과 우리 혁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데 대하여 일깨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쏘일중립조약체결과 관련하여 한때 부대안에 나타났던 사상적동요가 가셔지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훈련기지를 떠나 소부대와 함께 그해 5월 중순 왕칭현 쟈피거우 림시비밀근거지에 이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 훈련기지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료해하신 자료들과 훈련기지에서의 사업정형, 쏘일중립조약체결과 관련하여 대원들속에서 나타났던 사상적동요와 편향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말씀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아야 할 절박성을 헤아리시고 주체30(1941)년 5월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혁명대오안에서 큰 나라에 의존하려는 사상을 뿌리빼고 우리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할데 대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 있은 탁상골회의, 쟈피거우회의들에서 필승의 신념을 안고 우리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그리고 8월에는 백두산밀영에 계시는 김정숙어머님에게 친필편지를 보내시였다. 거기에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와 압록강연안일대에서 탁상골회의, 쟈피거우회의방침을 관철할데 대한 임무가 담겨져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두산밀영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편지를 받으신 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이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무산, 연사지구 혁명조직들을 지도하시면서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백두산밀영에 있는 성원들을 파견하시여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정치공작소조, 혁명조직성원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실태를 료해장악하게 하시였다. 그 과정에 무산, 연사지구의 일부 혁명조직성원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이 없고 투쟁도 적극 벌리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체30(1941)년 9월 무산, 연사지구로 떠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강행군으로 국사봉비밀근거지 물방아골밀영에 이르시여 이곳에서 무산, 연사, 삼장지구 혁명조직책임자들의 모임을 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먼저 탁상골회의와 쟈피거우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내용을 전달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에 근거하여 이곳 일부 혁명조직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을 지적해주시고 앞으로의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나타난 현상은 필승의 신념을 잃어버리고 혁명력량을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과 반일반전투쟁을 적극 조직지도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그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조선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계속해나가야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국사봉비밀근거지에서의 사업을 마치시고 무산군 독소리 연두봉으로 가시였다. 거기에서 무산일대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을 만나신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사상과 그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어머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준엄한 정세하에서 한때 위축되였던 무산, 연사지구의 혁명조직들은 다시 활기를 띠고 움직이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31(1942)년 1월에는 백두산밀영에서 대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조성된 정세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머님께서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것을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또한 밀영에 찾아오는 정치공작원들과 국내에 파견되는 소조성원들을 만나시여 일제의 기만선전에 대처하여 혁명조직성원들과 광범한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겠다는 혁명적신념과 투지를 가지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정력적인 활동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성원들, 인민들이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3.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활동

1940년대 전반기 조성된 혁명정세는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릴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 동시에 광범한 반일대중을 굳게 묶어세우고 전민항쟁태세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혁명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며 전인민적무장봉기를 일으킬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북부조선일대와 창바이지구에서 혁명조직들을 정비확대하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0(1941)년 3월 여러 지역에 소부대, 소조들을 많이 파견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그들을 조직화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확대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후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창바이일대의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며 백두산밀영을 거점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일대의 국내혁명조직들, 소부대와 소조들을 지도할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창바이일대의 조국광복회조직들을 복구정비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의 말씀대로 장백일대의 혁명조직들부터 빨리 복구정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 조직선들을 타고 국내에 계속 공작원들과 소조들을 파견하여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적항쟁을 실속있게 준비하여나갈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해 5월 하순 창바이현 쟈짜이수이(가재수)로 들어가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쟈짜이수이 조국광복회 핵심성원과 쟈짜이수이부녀회 책임자를 만나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해설해주시였다. 그리고 쟈짜이수이일대의 혁명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국내 여러곳에 조직을 확대해나갈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이어 타오취엔리에 가시여 활동하시였다.

그후 또다시 타오취엔리에 나가시여 혁명조직책임자들의 모임을 열고 혁명조직들이 지난 시기 조직에 관계하였던 사람들에게 조직선을 이어주며 핵심성원들을 교양하고 준비시켜 국내각지에 파견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무산, 연사지구에 나오시여 이 지역 혁명조직들을 정비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벌리시였다.

어머님께서 무산, 연사지구에서 벌리신 정치활동은 이 지구 혁

명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북부국경일대를 혁명의 보루로 꾸리며 최후결전준비를 다그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핵심들을 많이 키워내고 그들을 전국각지에 파견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항쟁준비에서 핵심을 키우는것을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보시고 간백산밀영에서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강습을 조직하시였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공작원들과 국내혁명조직들에서 선발되여온 성원들이 참가하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간백산밀영강습소에서 전민항쟁의 핵심을 키워내고 준비된 핵심들을 파견하는 사업이 잘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간백산밀영강습소를 찾으신 어머님께서는 강습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강습생들을 받아들이고 파견하는데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실천속에서 핵심들을 많이 키워 그들을 국내각지에 파견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당시 북부조선일대에는 탄광, 광산, 목재소, 수전공사장이 집중되여있었으므로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로동자들이 많았다. 그런것만큼 그들을 깨우쳐주고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킨다면 능히 핵심으로 키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실정에서 북부조선일대를 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꾸리실것을 구상하시였다. 그리고 준비된 핵심들을 전국각지에 파견하여 혁명조직을 늘여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무산, 연사지구에 여러차례 나오시여 이곳 혁명조직들이 핵심을 많이 키워 전국에 파견하는 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게 하시였다.

주체33(1944)년 7월 조국광복회 서두수지회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어머님께서는 준비된 조직성원들과 로동자들을 넓은 지역에 파견하게 하시였다.

그때 일제는 안팎으로 타격을 받고 한창 다그치던 서두수수력발전소공사를 중지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여기에서 일하던 로동자들이 새 일터를 찾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가게 되였다.

어머님께서는 혁명군중이 일시에 해체될 정황앞에 모대기는 조직성원들에게 이 기회에 준비된 조직성원들과 로동자들을 여러 지역에 보내여 그들이 다른 공사장들에 가서도 대중에게 혁명적영향을 주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핵심들을 더 많이 키워 넓은 지역에 파견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백무선철길공사장, 무산, 연사지구의 채벌장, 류벌장들에서도 핵심을 키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지도밑에 무산, 연사지구의 혁명조직들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롯한 국내 여러 지역에서 모여온 로동자들을 조직의 핵심으로 키우고 그들을 국내 여러곳에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빠른 기간에 혁명조직을 늘이고 광범한 군중을 전민항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전민항쟁무장조직들을 더욱 늘이고 무장봉기태세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여러 지역에서 무장조직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그러기 위하여 무산, 연사, 삼장지구 혁명조직들이 실천투쟁속에서 검열된 청년들로 생산유격대, 로동자돌격대와 같은 무장조직을 많이 내오게 하시였다. 그리고 청년들이 들어가있는 《자위단》을 우리의 반군사조직으로 전환시키고 놈들의 훈련소들을 역리용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징용이나 징병을 피하여 산속에 숨어있는 청년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반일항쟁조직에 망라시키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무산, 연사지구의 소부대, 소조, 혁명조직들은 무장조직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무산광산백의사와 같은 수많은 무장항쟁조직들을 무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데서 무장조직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그러기 위하여 반군사조직들이 무장을 갖추며 유리한 지대에 비밀훈련장소를 꾸리고 거기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속에서 무장조직성원들을 단련시키게 하시였다.

이 시기 무산광산의 무장조직인 무산광산백의사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에서는 일제의 군수생산과 전시략탈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그리고 놈들의 무기를 빼앗고 폭탄을 만드는 등 무장투쟁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었다.

김정숙어머님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한 여러곳에 혁명조직들이 확대강화되고 전민항쟁태세가 철저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할수 있는 주체적혁명력량이 더욱 튼튼히 준비되여갔다.

징용—일제가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산업과 군사시설확장을 위하여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간것.

징병—일제가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병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선청년들을 강제적으로 끌어간것.

4. 군정훈련 참가, 최후결전준비를 갖추기 위한 활동

군정훈련 참가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두산밀영에서의 사업을 마치시고 주체32(1943)년 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훈련기지로 가시였다.

이무렵 훈련기지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두고 군사정치훈련을 맹렬히 벌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우수한 간부들이 수많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도래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핵심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이 자신을 얼마나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군정훈련을 힘있게 벌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

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요구였다.

군정훈련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계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치학습과 군사훈련에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늘 군정훈련과 학습에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대원들을 이끌어나가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들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정치학습에 첫째가는 힘을 넣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어찌나 학습에 열중하시였던지 식사하는것조차 잊으신 때가 많으시였다.

전우들이 학습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때식을 번져서야 되겠는가고 말씀드리면 《먹는것보다 배우는것이 더 귀중한 혁명의 량식이예요.》라고 하시면서 학습에 모든 정력을 쏟아부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정훈련이 한창이던 주체32(1943)년 9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앞에서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력사적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로작이 발표되자 낮에 밤을 이어 깊이 학습하시였다. 그리하여 그 내용을 남먼저 통달하시였으며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드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깊이 파악하기 위한 토론에도 적극 참가하시였다.

폭넓고 깊이있고 론리정연한 어머님의 토론은 언제나 대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국의 력사와 지리, 문화에 대한 많은 책을 읽으시면서 조국에 대한 학습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대원들의 정치학습을 적극 도우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대원들에게 군정학습에서 기본은 정치학습을 잘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방침들을 깊이 학습하는데 중심을 두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학습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배운 내용에 기초하여 대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알기 쉽게 하나하나 해설해주군 하시였다.

나라안팎의 정세와 혁명의 동력과 대상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어려운 내용들은 우리 나라 실정과 결부하여 깨우쳐주시였다.

학습하는데서도 토론과 론쟁, 문답의 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학습문제를 깊이 리해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치학습과 함께 군사훈련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훈련을 통하여 모든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이 유격전술에 정통할뿐아니라 현대전에 필요한 선진군사지식과 각종 병종기술을 습득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전술훈련, 락하산훈련, 사격훈련, 스키훈련, 무선통신훈련을 비롯하여 현대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훈련들의 강도는 한다하는 남대원들도 힘겨워하는 정도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모든 종목의 훈련에 참가하시여 실천적모범으로 대원들을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가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도하훈련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그때 녀대원들속에는 헤염을 칠줄 아는 사람이 몇명 없었다. 그들은 대부분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이였다.

어머님께서는 헤염을 잘 치는 한 대원에게 물에 들어서기 주저하는 대원들을 맡겨주어 그들에게 헤염치는 법을 배워주게 하시였다. 그리고 도하훈련때 기운이 진하여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대원들에게 《저 대안이 조국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힘이 날것입니다.》라고 고무하시며 대원들모두가 수백m나 되는 강을 기어이 건너가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해 겨울 구분대별강행군경기에 녀대원들과 나어린 대원들이 대부분인 구분대를 책임지고 나가 제1위로 결승선에 들어서시였다. 그리고 락하산훈련과 항공륙전대훈련에서도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때 훈련지휘부에서는 모성들과 체중이 지내 많거나 적은 대원들은 안전상리유로 이 훈련들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이 훈련도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위한 훈련인데 녀성이라고 어떻게 빠지겠는가고 하시며 기어이 참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느날 첫 락하산훈련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

시여 긴장해있는 녀대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대담하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겼어요?

모두들 일제의 마지막숨통을 조이는 싸움터로 간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자요.》

그러시고는 락하명령이 내리자 《동무들, 우리모두 땅우에서 다시 만나자요.》라고 하시며 선참으로 비행기에서 뛰여내리시였다.

어머님을 비롯한 모든 녀대원들이 지정된 지점에 정확히 락하하였을 때 남대원들이 달려와 축하의 꽃묶음을 안겨주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스키훈련, 무선통신훈련, 간호훈련에도 적극 참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특히 사격훈련에 피타는 정력을 기울이시여 실탄사격에서 명사격술을 보여주시였다.

주체33(1944)년 3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성대한 사격경기대회가 있었다.

여러 대원들의 사격이 끝난 다음 김정숙어머님의 차례가 되자 사격장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모든 눈길이 어머님께로 쏠리였다.

어머님께서는 총을 잡으시고 화선에 나서시였다. 드디여 사격구령이 내리고 때를 같이 하여 세방의 총소리가 련달아울렸다. 신호수는 붉은 신호기를 세번 올렸다내렸다. 30점, 세방이 다 목표판의 중심을 맞힌것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뒤이어 200m, 300m 거리의 목표판들도 순간에 소멸해치우시였다. 다음목표는 100m 거리에 세워놓은 다섯개의 병목표였는데 그것도 차례로 명중시키시였다.

이어 권총사격이 시작되였다. 원형목표를 쏘고나서 뒤로 돌아서는 순간에 가름대우에 놓인 세개의 병을 사격하는 경기였다. 많은 사수들이 한두개의 병은 맞히지 못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원형목표를 쏘고 돌아서는 순간에 가름대우에 놓인 세개의 병을 명중사격으로 부셔버리시였다. 순간 사격장은 감탄의 목소리와 환호소리로 들끓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격경기를 총화하시면서 최고점수를 받고 1위를 하신 김정숙어머님에게 표창으로 소형권총을 수여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여해주신 소형권총을 그 어떤 표창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속에서 받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명사격술의 비결을 묻는 대원들에게 《자나깨나 사령관동지를 보위해야 하겠다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꾸준히 훈련하여 사격술을 높인 결과입니다.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싸우는 우리 전사들에게 있어서 사격술을 높이는것은 단순히 군사적의무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신 장군님을 보위하는 숭고한 사명으로 되는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실천적모범으로 대원들이 모든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이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에 참가할수 있는 정치군사적준비를 더욱 튼튼히 갖추어나갈수 있었다.

최후결전준비를 갖추기 위한 활동

1940년대 중엽에 이르러 안팎의 정세는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갔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령활한 소부대, 소조활동과 우리 인민들의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 태평양전쟁과 중국전선에서 련속 얻어맞고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최후결전준비를 다그치기 위하여 조국해방의 3대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조국해방의 3대로선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 배후련합작전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것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국해방의 3대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최후결전을 위한 군정훈련에 적극 참가하시는 한편 국내에로 파견되는 소부대, 소조들의 사업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국내에로 파견되는 소부대, 소조성원들에게 국내인민들의 항쟁준비와 혁명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

는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특히 소부대, 소조성원들에게 국내각지의 혁명조직들과 생산유격대, 로동자돌격대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잘 이끌어주어 그들이 최후결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이 활동하게 될 지방의 실정과 산세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시고 그들의 출발준비도 보살펴주시였다.

여러차례에 걸치는 국내공작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으신 김정숙어머님의 가르치심은 소부대, 소조성원들의 활동에서 큰 도움으로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최후결전을 앞둔 시기에 국내에 진출하시여 전인민적봉기를 일으키기 위한 만단의 태세를 갖추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멸망이 시간문제로 되고있던 주체34(1945)년 5월 백학산림시비밀근거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 및 혁명조직책임자들의 비상회의를 여시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 소부대, 소조들과 혁명조직들이 최후결전태세를 시급히 갖출데 대한 조치와 그 실현을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최후결전태세완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두만강연안과 동해안의 북부조선일대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소조, 혁명조직들을 지도할데 대한 임무를 맡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학산림시비밀근거지를 중심으로 하여 선봉, 라진일대를 비롯한 북부동해안일대와 두만강연안일대의 소부대, 소조, 혁명조직들과 무장조직들의 활동을 지도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우선 소부대, 소조, 혁명조직, 무장조직성원들이 전투동원태세를 시급히 완성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이와 함께 북부조선의 소부대, 소조와 혁명조직, 무장조직들이 군중을 발동하여 적들에 대한 정찰활동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북부조선, 동해안일대의 반군사조직, 무장조직들에 대한 지휘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무장조직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지휘부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또한 소부대, 소조, 혁명조직들에서 일제의 군수생산을 파탄시키는 투쟁을 비롯하여 반일반전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파업과 태업, 폭동 등을 도처에서 적극 벌리며 적의 군수창고와 군사시설물, 적통치기관과 통신시설을 습격, 파괴하고 불태우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특히 경흥지구에서 활동하는 혁명조직성원들이 적들의 군수용석유와 석탄, 폭발물생산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지도밑에 최후결전준비는 더욱 성과적으로 진척되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34(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일제히 총공격에로 넘어갔다. 이에 힘을 합쳐 인민무장조직들의 배후타격전이 벌어지고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전민항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무조건 항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승리하고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

이 승리의 길우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시고 능숙하고 세련된 조직정치활동과 령활한 군사활동으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신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백두의 녀장군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위훈이 빛나게 수놓아져있다.

제4장.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새 조국건설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보좌,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키우신 불멸의 공적

〔주체34(1945). 8－주체38(1949). 9〕

1. 함경북도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동

해방후 정세는 우리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었다.

국내 여러곳에서 아직 일제패잔병들과 반혁명세력이 준동하고 있었으며 종파분자들이 권력싸움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정세속에서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힘껏 보좌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1월말 선봉군(오늘의 라선시)에서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먼저 부두에서 항만복구정형을 알아보시였다.

부두에서 복구사업을 맡아보고있던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정숙어머님께 항만복구정형을 말씀올렸다.

그러는 사이에 항일혁명투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분이 백두의 녀장군으로 이름높던 김정숙어머님이시라는것을 알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부두는 군중들로 차고넘쳤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복구중에 있는 부두의 높은 곳에 오르시여 군모를 벗으시고 머리를 숙여 군중들에게 인사를 하시였다. 순간 열렬한 환호소리가 울려퍼졌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솟구치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보니 오래동안 헤여졌던 부모형제들과 친지들을 만난듯이 감개무량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기다리던 이날입니까.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산에서 일제놈들과 싸울 때 우리는 어느 하루도 여러분들을 잊어본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어머님께서는 혁명선렬들이 흘린 고귀한 피를 잊지 말고 모두다 그들의 념원대로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삼천리조국강토에 인민의 락원을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날 《모두다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갑시다.》라는 호소로 연설을 마치시였다.

군중들속에서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다시금 터져올랐다.

뒤이어 어머님께서는 바다가에 나가시여 마사진 고기잡이배와 어구들을 수리하여 물고기를 잡을데 대하여 의논해주시고 콩마당질하는 한 농가에 들리시여서는 도리깨질을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해설해주시였다.

그리고 청년단체조직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뭉칠데 대해서도 가르치시였다.

선봉땅에서의 사업을 마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다음날 화물자동차를 타고 청진으로 나오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청진에 거의 한달동안 머물러계시면서 일군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인민들을 새 민주조선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청진시 해방동 2층집 숙소에 머물러계시면서 함경북도의 구체적인 실정을 료해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당시 함경북도의 형편은 매우 복잡하였다.

일제가 혹심하게 파괴한 공장, 철도, 항만들은 아직 복구되지 못하였고 인민들의 생활도 어려운 형편이였다. 그런데다가 도의 책임적인 자리를 차지한 종파분자들이 제멋대로 날뛰고있었다.

어머님께서는 청진시에 파견되여 활동하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자고 말씀하시였다.

11월 28일 어머님께서 계시는 숙소에 《새길신문》사의 기자들이 찾아와 기자회견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김정숙어머님을 만나뵙고 녀성의 몸으로 만저우광야를 주름잡으며 일제놈들과 싸워이긴 이야기를 듣고싶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기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저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장군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던 이야기는 얼마든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기자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전술과 전법에 대하여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어머님께서는 계속하여 함께 싸우던 전우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때 어머님의 눈가에는 먼저 간 전우들의 생각으로 눈물이 고여있었다.

어머님께서는 시간이 퍼그나 흘러 담화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기자들이 어머님의 생애에 대하여 알고싶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님께서는 《신문에는 마땅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하여 써야 합니다. 전사들의 이야기는 수령의 력사속에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니 장군님에 대해 써야 합니다.》라고 하시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사양하시였다.

기자들은 하는수 없이 몇살 때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는가,

조선인민혁명군에는 언제 입대하고 어떤 전투들에 참가하셨는가 하는 물음을 연방 제기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짤막한 대답을 주실뿐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신문에 장군님의 로선과 방침을 잘 해설하여 대중을 새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여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기자회견이 있은 후 《새길신문》은 1면에 김정숙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김일성**장군은 혈기왕성한 청년장군이시고 만저우광야를 활무대로 맹호같이 활약하여 일제의 가슴을 서늘케 하시였으며 세계적으로 그 용맹을 떨친 조선이 낳은 혁명가이시라는데 대하여 크게 실었다.

그리고 전민족이 단결하여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서자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내용도 실었다.

며칠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자회견내용이 실린 《새길신문》의 기사를 읽으시고 말씀하시였다.

《정숙동무가 말을 잘하였구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싶던 말을 그대로 하였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청진에 계시는 나날 인민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어주시면서 수령님께서 생각하시고 의도하시는 문제를 인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주고 그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청진제철소와 부령야금공장, 고무산세멘트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여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로 로동계급을 적극 불러일으키시였다.

청진제철소를 찾으시여 공장복구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부령야금공장과 고무산세멘트공장복구정형을 료해하시려고 부령으로 떠나시였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추운 겨울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목탄을 쓰는 화물자동차를 리용하시였다.

한낮이 되여 부령야금공장에 이르신 어머님께서는 변압기수리현장과 전기로복구현장에서 로동자들을 만나 담화하시면서 중요한것은

자기 힘으로 복구하겠다는 결심과 꼭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일제놈들이 파괴하고간 공장을 보란듯이 몇배 더 훌륭하게 복구해놓자고 하시였다.

부령야금공장로동자들을 만나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고무산세멘트공장을 향하여 부령땅을 떠나시였다.

자동차가 고무산세멘트공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르자 함께 떠났던 항일혁명투사들이 세멘트공장은 돌아오는 길에 들리고 곧추 회령으로 가시자고 말씀드리였다.

어머님께서는 차를 멈추게 하시고 잠시 길에 내려서시여 무산령너머 고향의 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회령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함께 가던 항일혁명투사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지금 장군님께서는 새 조국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끼니도 휴식도 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고향땅부터 찾겠습니까. 나는 여기 일을 하루속히 끝내고 평양으로 올라가 장군님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서운해하는 항일혁명투사들을 지켜보시던 어머님께서는 웃으시며 《회령에는 이다음 꽃들이 활짝 필 때 가보자요.》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날 그리운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들리지 않으시고 고무산세멘트공장의 로동계급을 찾아 떠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곳 로동자들과 담화하시면서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복구하고 세멘트를 생산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함경북도일대에서 보내신 하루하루는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뜻깊은 나날이였다.

청진에 머무르신지 한달이 거의 되여오는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평양으로 올라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드디여 평양행렬차에 오르시였다.

그 렬차는 객차가 아니라 바닥에 노전을 깔고 자그마한 난로를 놓은 유개화차였다.

일군들은 며칠 기다려 객차가 마련된 다음 떠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올렸다.

하지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장군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편안한 차를 타고가겠다고 한시인들 지체할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유개화차에 오르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청진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청진역을 떠나시여 12월 29일 평양에 도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경북도일대에서 진행하신 어머님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함경북도에서 벌리신 활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모든 사람들을 굳게 묶어세워 그들모두를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큰 기여로 되였다.

주체35(1946)년 1월 1일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아드님과 함께 만경대를 찾으시였다.

이날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고향집에 백두산3대장군을 처음으로 함께 모신 일대 경사의 날이였다.

2.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활동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보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는 물론, 해방후에도 어머님께서는 오직 수령님을 보위하고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해방후 계급적원쑤들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우리 나라 북반부 여러 지역에서 악랄한 테로행위를 감행하고있었다. 반동들의 테로행위의 기본목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수뇌부였다.

이런 정세하에서 김정숙어머님의 모든 활동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데 집중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정숙어머님께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고향인 회령에도 다녀오고 일가친척들도 찾아보시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동지들의 권고를 받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제가 장군님의 사업을 도와드리지 않고 어찌 자리를 뜨겠습니까. 저는 나라가 안정되기 전에는 친척들을 찾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장군님을 보위할 하나의 임무만이 있을뿐입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철저히 보위하는 사업을 자신의 제1차적인 사업으로 여기시고 솔선 호위병의 임무를 수행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경위대를 책임진 지휘관들과 위대한 수령님의 부관들을 만나 수령님의 신변보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의논해주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택에 들어오시면 자신이 직접 경위대원이 되시여 호위임무를 수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무실로 나가실 때나 저택에 들어오실 때가 되면 어머님께서는 의례히 밖에 나가 주변을 살피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저택에서 일하실 때면 저택주변을 순찰하시였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지키신 드팀없는 일과였다.

주체35(1946)년 2월초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과 관련한 보고를 쓰시느라고 한밤을 지새우시였다.

그때 저택을 순찰하던 경위대원들은 쏟아져내리는 함박눈을 맞으시며 집무실창밖에 서계시는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을 뵙게 되였다. 사정없이 퍼붓는 눈발속에 서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백두산밀영에서 사령부귀틀집을 지켜 밤을 지새우시던 모습 그대로이시였다.

경위대원들이 들어가 쉬시라고 말씀드렸으나 어머님께서는 산에서 싸울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버릇이 되여 이제는 어쩔수가 없다고 하시며 오히려 경위대원들을 걱정해주시였다.

진정 김정숙어머님은 항일무장투쟁시기와 다름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키는 휴식없는 순찰병, 교대없는 보초병이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였다.

그해 2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이 깊도록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방송사업이 나아갈 방향과 과업을 밝혀주고계시였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리더니 이어 전등이 꺼졌다.

불의에 발생한 정황에 일군들은 긴장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놀랄것 없습니다. 몇놈의 쥐새끼들이 쏠라닥거리는 모양인데 우리 좀 쉬고 이야기를 계속합시다.》**라고 하시며 출입문쪽으로 향하시였다.

그런데 어느새 김정숙어머님께서 두팔을 벌리고 문을 막아서계시였다.

어머님의 손에는 싸창이 쥐여져있었다.

《안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없다고, 무슨 일인지 나가서 알아나보자고 하시며 그냥 문밖으로 나가려고 하시였다.

그러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온몸으로 문을 막으시며 《절대로 안됩니다. 나가실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위대의 요구입니다.》라고 강경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눈앞에는 방금전 다과를 권하시던 부드럽고 상냥하신 김정숙어머님이 아니라 싸창을 틀어쥐고 서리발같은 시선으로 어둠을 헤가르는 백두의 녀장군, 친위병이 서계시였다. 이 순간의 어머님은 말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선 성벽이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경위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시키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경위대원은 누구보다 장군님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하며 정치사상적각오가 높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정치학습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아침이면 당보를 읽으시고는 중요한 기사들에 표식을 하여 경위대지휘관들에게 주시여 독보하게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보에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 그리고 나라안팎의 정세가 실리는데 그것을 읽지 않으면 혁명전사의 구실을 제대로 할수 없다고 깨우쳐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경위대원들에게 당정책을 모르면 아무리 당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당의 방침과 어긋나게 행동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경위대원들이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해나갔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경위대원들의 사격술을 높이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경위대원의 총알이 단방에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다면 그 총은 돌멩이나 몽둥이만도 못한것이라고 대원들을 깨우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바쁜 시간을 내시여 그들의 사격훈련과 실탄사격도 보살펴주시고 시범사격도 해보이시면서 신묘한 사격술을 대원들에게 배워주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경위대원들의 사격술을 높이게 하는것과 함께 보초근무를 설 때 여러가지 징후판단방법과 묘리를 잘 알고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튼튼히 보위하게 하시였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경위대원들에게 노래에 박자와 소절이 있는것처럼 모든 소리에는 그에 고유한 고저장단이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소리들가운데서도 장군님을 알아보는 소리를 익히고 그에 훈련될데 대하여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끝없는 충실성과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속에서도 우리 혁명의 수뇌부가 굳건히 보위될수 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보장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보장해드리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어머님께서는 수령님께서 한순간이라도 편히 쉬게 하시려고 새벽마다 장대를 드시고 우짖는 새들을 날려보내시였으며 여름이면 모기쑥을 태워 모기를 쫓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실 특별렬차가 마련되였을 때에는 렬차의 전등갓을 피로를 덜어주는 복숭아꽃색전등갓으로 바꾸게 하시였고 항일전의 나날 눈보라와 비바람을 헤치시며 모진 고생을 다 겪으신 수령님께 손수 수를 놓으신 비단이불도 만들어올리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 바치신 어머님의 지성은 끝이 없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식생활을 보장해드리는데서도 온갖 성의를 다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잡곡을 가지고도 위대한 수령님의 구미에 맞게 식사를 보장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즐겨드시는 음식을 잊지 않으시고 정성껏 만들어올리시였다. 더우기 장과 같은것은 자신의 손으로 담그시여 떨구지 않고 보장하군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대한 수령님의 식사시간은 철저히 보장하시였다.

주체36(1947)년 9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금강산에 가셨을 때 어머님께서는 만물상과 구룡연의 구경을 미루시고 수령님의 식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되돌아내려오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신변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바치신 로고는 혁명전사들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어떻게 모시고 보위하며 위해드려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위대한 귀감으로 된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을 소개선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널리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위대성선전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깨닫고 수령님께 매혹되여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전설적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인민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청진일대에서 활동하실 때 찾아온 기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싸우신 가지가지의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널리 해설선전할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각계각층 인민들과의 상봉모임, 환영모임, 여러 부문 일군들과의 좌담회들에서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때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자료를 종합정리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하루빨리 장군님의 혁명활동자료를 종합정리하여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로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민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게 될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발굴사업을 적극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 보관하고계시던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야영구에서**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을 남기신 사진과 수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권총 등 사적물들을 해당 기관에 보내도록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관심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자료수집사업과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종합체계화하는 사업이 해방직후부터 진행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대대손손 전해갈 혁명송가로 완성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해방의 기쁨속에 새 생활을 펼쳐가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해방의 은인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노래에 담아 길이 전하고싶은 소원이 더욱 커가고있었다.

그리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노래를 지어줄것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련이어 올라왔다.

하지만 한없이 겸허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마다 엄하게 막군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은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창작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주체35(1946)년 5월 어느날 김책선생님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지어달라는 내용이 담겨진 편지묶음을 가지고 어머님을 찾아왔다.

어머님께서는 그 편지들을 읽어보시고 인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는것이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지체하지 말고 우리 장군님의 노래를 짓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김책선생님은 이미 어느 한 시인에게 장군님에 대한 노래가사를 써보게 하였다는것을 어머님께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그 시인이라면 장군님에 대한 노래가사를 잘 지을수 있을것이라고 긍정해주시였다.

김책선생님은 김정숙어머님의 동의는 받았지만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또 꾸지람을 하실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걱정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용히 웃음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물론 장군님께서는 그러실겁니다.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장군님이 아니십니까.》

그러시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 없다고, 산에서 싸울 때부터 장군님의 노래를 지어부르려고 얼마나 애썼는가, 그때 장군님께서 엄하게 막으신다고 해서 노래를 만들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쉽기 그지없다고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가 장군님의 승인만을 기다린다면 언제 가도 장군님의 노래를 지어부를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송가를 지어 인민들이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지니도록 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과제였으며 우리 혁명의 요구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짓는것은 더는 지체할수 없는 일이라고, 만약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민들앞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장군님의 노래를 지어야 합니다. 이제 짓게 될 노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칭송하는 노래로,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불러갈 영원한 노래로 되게 잘 짓도록 해야 합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후 김책선생님을 통하여 노래창작실태를 자주 알아보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장군님에 대하여 노래하자니 어려울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가지고계시던 노래수첩을 보내주시였다.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지으신 노래를 비롯하여 100여편의 혁명가요가 들어있었다.

가사초고가 다 되자 시인은 김정숙어머님께 보여드리고 가르치심을 받았으면 하는 의향을 김책선생님에게 말하였다.

어머님께서는 곧 시인을 만나주시였다.

가사를 여러번 읽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창가에 서계시였다.

시인이 가사에 대한 의견을 주실것을 말씀드리자 어머님께서는 가사가 잘되였는데 의견이야 무슨 의견이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다만 장군님에 대한 노래가사를 보게 되니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험난한 혁명의 길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되새기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무장투쟁을 하실 때 겪으신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발자취는 우리 나라 그 어디에나 깃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 발자취는 백두산의 험한 줄기들과 압록강과 두만강의 굽이굽이에도 어리여있다고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시였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장군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을 뿌릴것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은 곧 시인이 그처럼 찾고있던 혁명송가의 시상이였으며 장엄한 운률이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해갈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훌륭히 완성되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에는 북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나 《**김일성**장군의 노래》보급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인민의 영원한 심장의 노래로 된《**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이렇게 김정숙어머님에 의하여 창작완성되였다. 그리고 새 민주조선건설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쳐 우리 인민을 고무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영생불멸의 송가로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도서들을 많이 출판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특히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략전편찬사업을 세심히 돌봐주시였다.

략전편찬일군들은 김정숙어머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략전집필을 힘있게 다그치였다.

그리하여 주체41(1952)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40돐을 계기로 《**김일성**장군의 략전》이 출판되여나오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해방후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위하고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 사업에 고결한 지성을 다 바치시였다.

3.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한 활동

해방후 자체의 강력한 민족군대,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더우기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전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책동하고있던 조건에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는것을 새 조국건설을 위한 3대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군력사에 남기신 어머님의 공적은 참으로 큽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핵심적골간으로 될 군사정치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적극 보좌해드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수십여차례 나가시여 학교의 모든 교수교양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주체35(1946)년 2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학원개원식에 참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날 학원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양학원은 명실공히 새 조선의 민족간부를 키우는 장군님의 학교입니다. 학원에서는 모든 교육과 교양을 철두철미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평양학원을 찾으실 때마다 모든 학생들을 장군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불굴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평양학원을 비롯한 군사교육기관들에서 학생들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는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시키는데 가장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평양학원개원식장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을 칭송하는 구호를 게시하는 사업을 지지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창작되였을 때 당시 평양학원 원장이였던 김책선생님과 토론하시고 평양학원 학생들이 대합창으로 부르게 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싶어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게 하시였다.

이것은 이 부문 일군들과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정신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군사교육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우리 식으로 교육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당시 군사교육기관안에 있던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쏘련식》이요, 《옌안(연안)식》이요 하면서 군사교육을 범벅식으로 하였으며 외국의것을 기계적으로 쓰고있었다. 대렬훈련도 다른 나라의 군사규범대로 시키고있었다.

주체35(1946)년 7월 26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찾으신 어머님께서는 다른 나라 군사학교에서 3년동안에 양성해내는 군사지휘관들을 이 학교에서는 1년동안에 양성하며 군사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정치과목을 옳게 배합하도록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고 받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 이후에도 어머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 진행하는 전술훈련을 현지에서 보아주시면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투규정과 교범을 가지고 교육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또한 군사교육기관들에서 옳바른 교육방법을 적용하게 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찾으실 때마다 교원들이 직관물을 교수에 널리 리용하도록 하시였으며 평양학원을 찾으시여서는 직관교육의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공군과 해군의 지휘간부들을 키우기 위한

학교들을 내오며 그들에 대한 교육을 잘해나가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학원에 나가신 어머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수령님의 항공대창설구상을 해설해주시면서 비행장건설을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 그 이듬해 수상보안간부학교 교장으로 파견되는 일군을 만나 우수한 해군간부들을 많이 키워낼것을 바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에 맞게 교육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규적혁명무력의 조직을 다그치며 갓 창설된 정규무력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규적혁명무력을 조직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에 맞게 군사규정과 교범작성 등 여러가지 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특히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으며 전투행동에도 편리한 우리 식의 군복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때 무엇보다 급한것은 군복이였다.

아직 군복을 제정하지 못하다보니 병사이건 지휘관이건 입대할때 입었던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있었을뿐아니라 지어 로획한 일본군복을 입은 군인들도 있었다.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식의 군복을 만들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군수피복공장에 나가시여 군복, 모자, 혁띠로부터 공병삽주머니에 이르기까지 피복과 장구류시제품을 빨리 만들게 하시였다.

군복시제품이 나오자 어머님께서는 경위소대원들에게 입혀보시고 미흡한 점들을 손수 바로잡아주신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 보여드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경위대원들이 입은 군복을 보아주시고 부족점을 지적해주시면서 배낭도 군사행동에 쓸모있게 만들어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튿날 아침 밤새워 다시 만든 배낭견본품을 위대한 수령님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배낭이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며 공장에서 만들기도 쉽겠다고 하시며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3월 그 시제품들을 조선인민군 군복으로 제정해주시였으며 모든 군인들에게 입힐수 있도록 여름철군복을 생산보장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거의 매일같이 군수피복공장과 여러 공장들에 나가시여 작업을 흐름식으로 하여 생산을 늘이고 질도 높이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947년 5월부터는 모든 군인들이 새 군복을 입게 됨으로써 정규적혁명무력의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규적혁명무력의 탄생을 선포하는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열병식때 군인들이 입게 될 군복생산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열병식을 하려면 수천명의 군관과 병사들의 군복을 더 생산하여야 하였는데 기간은 불과 석달밖에 없었고 그 생산능력도 제한되여있었다.

후방부문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열병식군복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다 입히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깨우쳐주시면서 그들을 새로운 혁신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열병식군복을 기한내에 생산보장하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군기를 만드는 사업은 물론 열병대오를 사열하실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입으실 복장을 갖추어드리는데도 최대의 정성을 기울이시였다.

드디여 주체37(1948)년 2월 8일 평양에서는 우리 인민이 그처럼 바라고 기다리던 정규무력의 조직을 선포하는 열병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날 열병식장에 나오시여 지축을 울리며 행진해가는 열병대오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시고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시며 뜨거운 눈물을 짓기도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급속한 강화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적극 보좌해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그 조직지휘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새로운 병종들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첫 땅크부대와 비행대들에 자주 나가시여 훈련정형을 알아보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건설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로 일군들을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땅크부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첫 땅크부대를 조직할 임무를 받은 류경수선생님의 군복을 친히 지어주시고 그에게 하루빨리 땅크부대를 조직하여 무적의 철갑대오로 강화발전시키자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사흘이 멀다하게 부대에 나가시여 땅크부대사업을 도와주시였다. 어떤 때는 땅크병들의 학습과 훈련에 필요한 필기도구들을 친히 준비하여가지고 나가시여 그들의 훈련열의를 북돋아주시였다. 그리고 부대일군들에게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처럼 오랜 기간 땅크기술을 배울수 없다고 하시며 훈련조직과 지도를 잘하면 짧은 기간에 땅크기술을 배울수 있다고 그들을 고무해주기도 하시였다.

그리하여 부대에서는 3개월동안에 땅크운전기술을 소유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을 모시고 열병식을 하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또한 갓 창설된 항공대를 빨리 확대강화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여러차례 비행장들을 찾으시여 유능한 비행사들을 더 빨리, 더 많이 키우며 기술근무원들을 키우는 사업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주체38(1949)년 6월 어느날 비행부대에 나가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첫 녀성비행사를 키워내게 하시였다.

참으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헌신의 자욱이 비끼지 않은 부문이란 없다.

오늘 우리 조국을 철벽으로 지키는 무적필승의 혁명무력건설력사에는 어머님께서 남기신 크나큰 공적이 아로새겨져있다.

정규무력—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군사조직체계와 통일적인 군사규범에 의하여 조직된 엄격한 군사규률을 가진 정규군대로 편성된 무력.

4.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활동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경제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적극적으로 받들어나가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제반민주개혁의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토지개혁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토지개혁을 앞둔 주체35(1946)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대동군 고평면 신흥리(오늘의 평양시 만경대구역 금천동)에 나가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녀성들의 일손을 도와주시면서 수령님의 토지개혁구상을 해설해주시였다.

어느 사이에 친근감을 느낀 녀인들이 어머님께 속마음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장군님께서 지주의 토지를 빼앗아 농민들에게 준다는것이 정말인가, 땅을 주어도 돈을 받고 준다는 말이 도는데 한정보에 얼마씩이나 받고 주는가, 지주가 정말 땅을 거저 내놓겠는가 하는 문제를 어머님께 물었다.

어머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죄다 들어주신 다음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농민들에게 꼭 땅을 나누어주신다, 돈을 받고 땅을 준다는것은 나쁜 놈들이 돌리는 거짓말이다, 한줌도 못되는 지주가 아무리 발악한다 해도 모든 농민들이 굳게 뭉쳐 로동자들과 손잡고 싸운다면 지주가 땅을 내놓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것이라고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토지개혁이 실시될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대동군 성삼리에 나가시여 토지개혁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그리하여 대동군 성삼리는 군적으로 토지개혁을 제일 먼저 끝내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토지개혁실시후 반동놈들의 책동을 꿰뚫어보시고 농민들을 깨우쳐주어 새 조국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시였다.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대동군의 한 농촌마을을 찾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날 농민들과 씨를 뿌리며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런데 한 농민이 분여받은 땅을 도로 내놓게 된다는 말이 도는데 정말인가고 물었다.

어머님께서는 그것은 땅을 빼앗긴 지주놈들이 내돌리는 반동선전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농민들은 영원히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고, 그 누구도 이 땅을 도로 빼앗지 못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땅을 빼앗긴 지주놈들은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고, 앞으로 통일정부가 서면 농민들이 땅을 도로 내놓게 된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퍼뜨리면서 지어 농촌일군들과 핵심당원들을 살해하는 행위까지 감행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반동놈들의 악랄한 책동을 폭로하시면서 동요하거나 신심을 잃고있던 농민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여 그들모두가 새 조국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중요산업국유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주체35(1946)년 8월초 평양시 중구의 한 피복공장을 찾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중요산업국유화와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정력적으로 해설해주시였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그곳 로동자들에게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 발포되면 로동자들은 공장의 주인, 새 조선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 지위가 법적으로 고착되게 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당시 반동놈들은 산업국유화법령이 실시되면 크건작건 모든 개인공장이 다 몰수되여 국유화될것이라는 잡소리를 퍼뜨렸다. 그러자 일부 기업가들속에서는 반동놈들의 허튼 소리를 곧이 듣고 자기 공장의 설비들을 시장에 내다 파는 현상이 나타났다.

어머님께서는 이런 실정을 헤아리시고 여러 개인상공업자들을 만나 중요산업국유화의 본질과 정당성을 하나하나 해설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중요산업국유화가 중소상공업자들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을뿐아니라 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한다는것을 깊이 깨우쳐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중소상공업자들을 따돌려 중요산업국유화를 파탄시키려던 반동놈들의 책동은 분쇄되고 말았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제반민주개혁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수산합작사를 조직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을 받들고 어촌들에서 령세어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며 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36(1947)년 9월 13일과 24일 함경북도 경성군 온대진리 집삼마을을 찾으시여 어부들과 함께 어로작업을 하시면서 그들이 진행하고있는 공동경리의 실태를 료해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9월 25일에는 염분진 잔짜개마을을 찾으시여 어로작업을 공동으로 하여 물고기도 많이 잡고 생활도 훨씬 펴이고있는 집삼마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수산합작사조직에서 시범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후에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여러 수산합작사들을 찾으시여 수산합작사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착공의 첫삽을 뜨신 보통강개수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보통강개수공사에 녀성들이 적극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주체35(1946)년 5월 녀맹일군들을 여러차례 만나시여 녀성들을 보통강개수공사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시안의 녀성들이 보통강개수공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 공사가 진척되자 녀맹조직들이 로력지원사업과 함께 후방물자를 마련하여 보내는 사업, 위문선전대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거의 매일과 같이 공사장에 나가 건설자들과 함께 땀흘려 일하시면서 그들을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2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모란봉을 돌아보시면서 꽃과 나무를 더 많이 심고 가꿀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다음해 4월 6일에는 문수봉에 오르시여 몸소 나무를 심으시였다.

이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경제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여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5.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후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인민교육제도를 철저히 세워 근로인민의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일제가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된 후 학교의 문들은 열렸으나 교육부문에는 일제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일제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학교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다.

어머님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평양제4녀자중학교를 찾으시여 교원, 학생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그 과정에 어머님께서는 학교들에 일련의 난문제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가운데서도 제일 큰 문제는 내용이 온전한 교과서가 없는것이였다.

당시 대수, 기하, 물리를 비롯한 자연과목교과서들은 일제때 쓰던것을 그대로 리용하였으며 사회과목들은 교육국(당시)에서 수

시로 내려오는 교수요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있었다.

어머님께서는 이제 멀지 않아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를 하루빨리 가셔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연과목교과서라 할지라도 수학의 응용문제 같은데 일제놈들이 우리 인민을 깔보는 내용이 들어있을수 있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새 조선건설로선을 깊이있게 알려주고 이제부터 조선사람은 일제의 식민지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제 나라를 가진 독립국가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계속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 문화를 잘 가르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특히 우리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를 반대하여 어떻게 싸웠는가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학생들의 연필문제를 풀기 위하여 마음쓰시였다.

어느날 평양시 주변농촌에 나가시여 농민들의 생활을 료해하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학생들이 꽁다리연필마저 아껴쓰고있는것을 보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이 사실을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나라에서 큰 연필공장을 짓게 하는 한편 당면하여 중소기업가들이 곳곳에서 연필을 많이 생산해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으신 후 보통벌에 있는 한 기업가가 수공업적으로 연필을 만들고있는 사실을 료해하시여 수령님께 보고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을 찾으시여 로동자들을 고무해주시면서 나라에서 모든것을 대주겠으니 질좋은 연필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고무해주시였다. 그리고 그해 2월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에 연필문제를 상정시키시고 연필을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음쓰시는 학생들의 교과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36(1947)년 7월 학생들의 교과서를 찍어내고있는 한 인쇄소를 찾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새 학년도가 박두한 지금 교과서인쇄보다 더 긴급한 과제는 없다고, 다른 인쇄물보다 교과서를 먼저 인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과서인쇄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인쇄소에서 돌아오시여 위대한 수령님께 인쇄소의 실태와 함께 앞으로 교과서를 제때에 인쇄하자면 전문공장을 따로 내와야 할것 같다고 하시며 그 대책적의견까지 보고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인쇄공장들에서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찍도록 하시였으며 얼마 지나서는 교과서를 전문으로 찍는 인쇄공장을 따로 내오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학교교육사업에서 가장 큰 애로로 제기되고있던 교과서문제가 풀리게 되였으며 새 학년도전으로 모든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아안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족간부양성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종합대학을 창립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하시였다.

해방후 종합대학을 창설하는것은 새 사회건설에 필요한 민족간부양성의 원종장을 꾸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7월 종합대학을 창설할데 대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을 공포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다그치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종합대학창립준비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종합대학을 창설하자면 대학생선발문제로부터 교사준비, 교원준비, 학생들의 옷차림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어야 하였다.

어머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 일군들을 자주 만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특히 종합대학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대학명칭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는 문제를 놓고 불순분자들이 시비해나섰을 때 첫 인민의 종합대학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이고 념원이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밀고나가도록 일군들을 고무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깊은 관심속에 해방후 처음으로 창립되는 인민의 종합대학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지게 되였다.

어머님께서는 종합대학의 교사를 건설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시 대학터전을 잡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시 룡흥일대를 돌아보시던 어머님께서는 수령님의 의도대로 이 일대를 훌륭한 대학촌으로 꾸릴데 대하여 일군들에게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종합대학건설장에 여러차례 나오시여 건설자들의 일손을 도우시며 교사를 훌륭히 완공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한편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남조선에서 들어온 수많은 학자, 지식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그들이 대학교육사업에 모든 힘을 다할수 있게 하시였다.

이렇듯 **김일성**종합대학은 김정숙어머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참다운 인민의 대학, 위대한 수령님의 대학으로 빛나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하신 다음 그것을 모체로 하여 여러 기술대학을 내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대학을 내오는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시였다.

그리고 삼흥중학교와 도산리유치원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들의 사업도 보살펴주시였다.

참으로 김정숙어머님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시고 조국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학생들과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키우신 조선의 위대한 교육자이시였다.

6. 혁명가유자녀들을 우리 당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한 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자유자녀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는것은 우리의 숭고한 임무입니다. 그전날 일제침략자들과 싸우다가 희생된 동지들은 눈을 감으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조국이 독립되면 자기의 아들딸들을 공부시켜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이 담겨진 가르치심을 가장 뜨겁게 받아안으신분은 김정숙어머님이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조국에 개선하신 첫날부터 유자녀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유자녀들을 찾아 국내외로 떠나는 일군들을 친히 만나시여 한달이 걸려도 좋고 두달이 걸려도 좋으니 기어이 찾아와야 한다고 하시였다.

주체36(1947)년 여름 한 항일혁명투사가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과업을 받고 중국 동북지방에 흩어져있는 유자녀들을 찾아 떠날 때에는 하늘땅 끝에라도 가서 그들의 자녀들을 기어이 찾아내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면 그들모두를 찾을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서 여러곳에 흩어져있던 수많은 혁명가유자녀들이 평양으로 모여오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유자녀들이 공부할 교사를 꾸리고 학원개원식준비를 다그치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때 간리에는 유자녀들이 공부할 림시교사가 꾸려지고있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유자녀들이 공부할 림시교사를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어느날 림시교사를 찾으신 어머님께서는 로동자들에게 이제 여기서 혁명가유자녀들이 공부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벽돌 한장을 쌓고 창문 하나를 내여도 성의를 다하자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무릅쓰시고 진흙을 이겨 섬겨주시며 로동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에 학원터전을 잡아주시였을 때에도 학원교사건설을 빨리 다그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학원원아들이 입을 제복도 잘 만들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주체36(1947)년 8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혁명가유자녀들이 도착하였다는 기별을 받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간리로 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께서 타신 차가 학원마당에 들어서자 뛰놀고있던 아이들이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막 달려왔다.

그런데 아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몇걸음앞에까지 달려와서는 더 다가오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마치 마안산아동단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시였을 때 막 달려나오다가 자기들의 옷차림이 너무 어지러워 선뜻 다가서지 못했던 그 광경이 다시 펼쳐진것만 같았다.

어깨가 드러난 적삼, 무릎이 나간 베잠뱅이, 신총이 닳아빠진 짚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격해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껴안으시고 《얘들아, … 장군님께서는 너희들이 헌옷을 입었다고 나무라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못 입고 못 산것은 너희들의 죄가 아니다.》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품으로 떠밀어주시였다.

그때에야 아이들은 《장군님! 장군님!》 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격정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일없다. 울지들 말아라. 이제 옷도 좋은것으로 해입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된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께 헐벗은 유자녀들에게 빨리 학원제복부터 해입히고 신발과 모자도 새로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후 학원개원준비를 다그치시면서 원아들의 제복을 잘 만드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일군들이 만들어온 제복도안을 보아주신 어머님께서는 옷은 군복형식으로 만들고 소매와 바지에 붉은 줄을 띠워 항일의 혁명전통

을 계승한다는것이 뚜렷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손수 도안을 그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제복도안이 완성되자 견본을 만드시고 제복제작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개원식을 앞두고 모든 원아들에게 제복이 일제히 공급되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동만에서 헤매던 유자녀들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머님께서는 곧 그들을 댁에 데려오게 하시였다.

아이들이 정문에 들어서자 어머님께서는 《어데들 가있다가 이제들 오느냐! 해방이 된지도 3년이 되여오는데…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찾으셨는지 아느냐.》 하시며 그들을 껴안고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안에 들어오시여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옛 전우들을 다시 만나신듯 애들을 껴안으시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을 했느냐. 아버지, 어머니 없이…》 하시며 말끝을 맺지 못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김정숙어머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주체36(1947)년 10월 마침내 만경대혁명학원이 개원되게 되였다.

이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아드님과 함께 학원개원식에 참석하시여 원아들을 축하하여주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이 창립됨으로써 우리의 혁명가유자녀들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울수 있게 되였고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핵심골간을 키워낼수 있는 믿음직한 기지를 가지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학원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과 학원의 교육교양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36(1947)년 8월 학원림시교사에 나가 유자녀들의 생활을 료해하시는 과정에 원아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날마다 뵙고싶어하는 심정을 헤아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로 건설하는 학원에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고 학원아이들이 언제나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살도록 해줍시다.》

동상을 모실 위치를 정해주신 어머님께서는 동상을 맡아 모시게 될 조각가들과 일군들에게 동상을 모시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동상건립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에는 여러가지 과일과 부식물을 마련하여가지고 찾아가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어머님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피심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립되였다. 그리하여 주체37(1948)년 10월 24일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제막식이 새 교사준공식과 함께 성대히 진행되게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학원의 교육교양사업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학생들을 당과 국가, 군대의 핵심골간으로 키우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군사지휘관을 많이 키우는것이 첫째가는 과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원아들을 오직 장군님의 사상밖에 모르며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에서 목숨도 바칠줄 아는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학원의 교육교양에서 기본이라고 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아들을 자주 만나시여 그들이 부모들의 뜻을 굿굿이 이어나가는 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학원의 한 학생을 만나시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한 부모들의 투쟁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모들처럼 수령님만 믿고 따르는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의리를 간직할데 대하여 말씀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학생들이 학습을 열심히 하도록 깨우쳐주시였으며 한 학생에게는 자신께서 쓰시던 만년필도 주시면서 공부를 잘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학원원아들의 사격훈련장에도 자주 나오시여 학생들의 사격동작을 보살펴주고 시범사격도 하시였으며 학생들이 몸을 튼튼히 단련하고 예술소조활동도 적극 벌려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유자녀들의 친어머니가 되시여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돌봐주시였다.

1947년 늦가을 학원안의 일부 원아들속에서 열병이 발생하였을 때였다.

이러한 때 학원에 나오신 어머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앓는 아이들이 있는 격리실에 가보자고 하시였다.

그러자 아이들을 말아보던 아주머니가 앞을 막아나서며 거기에는 들어갈수 없다고 말씀올렸다.

일군들도 격리실에만은 들어가실수 없다고 애원하듯 말씀드렸다.

어머님께서는 주저없이 격리실에 들어가시여 아이들의 병세를 살펴보시고 위로해주시면서 치료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서는 모든 아이들이 병을 털고 일어나 학업에 참가하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혁명렬사들의 유자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혁명의 대를 이어갈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주시였다.

7.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키우신 불멸의 공적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던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백두산의 아들로 안아올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은 태양민족의 위대한 아들을 맞이한 일대 경사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 새 력사의 장엄한 해돋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이어갈분이라는 의미에서, 미래의 태양이 되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두광명성이라고 칭송하였다. 그들은 《아 조선아 겨레들아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린다》, 《백두산에 **김일성**장군의 계승인 백두광명성 탄생》을 비롯한 수많은 구호들을 나무에 써서 민족의 대통운, 대경사를 온 세상에 알렸다.

그때부터 백두산밀영의 작은 귀틀집은 만경대고향집과 더불어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자리잡은 력사의 집으로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도록 하는데 가장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는 늘 너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장군님을 더 잘 모시고 장군님의 말씀을 더 잘 받들어나가겠는가, 오직 이 한가지 생각만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서 만경대의 혁명정신을 이어 조선을 빛내여나갈 원대한 뜻을 키워나가도록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만경대고향집을 처음으로 찾으시였을 때 아드님께 만경대고향집에서 나서자란분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 용감히 싸웠다고 하시며 어서 커서 아버님의 뜻을 이어 해방된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바로 그렇게 하는것이 만경대의 혈통을 이어나가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그후에도 아드님과 함께 만경대와 칠골, 봉화리를 찾으시여 김형직선생님, 강반석선생님과 위대한 수령님의 투쟁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만경대혁명일가의 혁명정신을 이어받도록 하시였다.

어머님의 진지한 노력과 교양은 어리신 장군님으로 하여금 일찌기 만경대의 혈통을 깨닫고 조선을 빛내여나갈 원대한 포부를 가슴깊이 새기게 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항일의 나날에는 물론 해방후에도 아드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한 가정의 아버님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교양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 자주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감명깊게 들려주시였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변모되여가는 조국의 벅찬 현실을 자주 보여주시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 잘 알고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침 일찍 저택을 나서실 때면 정문에 나가시여 정중히 바래드리시였으며 아무리 늦게 들어오시여도 역시 그곳에서 정중히 맞이하군 하시였다. 그리고 밤에는 교대없는 보초병이 되시여 집주위를 도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보위하시였으며 새벽에는 재잘거리는 참새들을 날려보내군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받드신 어머님의 일거일동은 맑은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그대로 옮겨졌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서 어서 커서 아버님을 도와드리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도록 교양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시는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조국의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아버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헤아리도록 하시면서 어서 커서 아버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댁에 계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깊은 밤에도 어서 커서 아버님의 일을 도와드리며 아버님을 받들어 일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무를 겸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비상한 사고력과 뛰여난 관찰력, 탐구심을 꽃피워주시기 위해 모든 지성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하시였으며 비상한 사고력과 관찰력, 뛰여난 탐구심과 억세고 담찬 기질, 통이 크면서도 너그럽고 소탈한 품성을 지니고계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남달리 비상한 사고력과 뛰여난 관찰력, 탐구심을 꽃피워주시기 위해 모든 지성을 다 바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기발하고 탐구적인 수많은 질문들을 어느 하나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였다.

어느날 나어린 장군님께서 유치원 셈세기공부시간에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것을 알아내시고 그에 대하여 물어보시였을 때에도, 사람과 돈가운데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보시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가고 물으시였을 때에도 그것을 긍정해주시면서 그 의미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어느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라지오앞에서 방송을 들으시다가 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달되는 원리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이때에도 어머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지 않으시고 시간을 내여 아드님과 함께 중앙방송국을 찾으시여 방송실, 송출설비들을 빠짐없이 돌아보시면서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서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니도록 하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지구는 어떻게 생겼으며 왜 도는가, 눈과 비는 왜 오며 바람은 왜 부는가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인류사회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발전하여왔는가, 미제침략군놈들은 왜 남조선에 기여들었는가 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아드님으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고도 넓은 지식을 소유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특히 아드님의 음악적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몸소 풍금을 타면서 노래도 배워주시였고 악보를 보는 법도 하나하나 익혀주시였다. 그리고 아드님에게 혁명가요를 배워주시면서 노래를 혁명의 무기로 간주하도록 하시였다.

한 항일혁명투사가 어머님께 장차 아드님을 음악가로 키우시려는가고 물은 일이 있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문명하게 만들어야 할 새 세대들은 선진과학과 기술도 배워야 하지만 음악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지극한 관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과 기술은 물론 문학예술에 이르기까지 다 꿰든 다재다능한 실력가로 성장하시는데서 비옥한 토양으로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두의 기상을 그대로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품과 기질을 더욱 훌륭히 가꾸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리신 아드님에게 백두의 장엄하고 억센 기상을 체현하신 아버지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해주시면서 백두의 기질을 키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무슨 일이나 대담하고 통이 크게 궁리하고 실천해나가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혁명적기질을 키워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리신 아드님께서 강의한 의지를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깊이 마음쓰시면서 추운 겨울날에도 체력을 단련하고 의지력을 키워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특히 군사놀이를 남달리 즐겨하는 아드님에게 인민군대처럼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싸워야 미국놈들을 때려눕힐수 있다고 말씀해주시였으며 총대중시를 드팀없는 신념으로 심어주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주체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열병식장에서 아드님에게 정규무력건설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대대손손 행복을 누리자면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진리를 깊이 심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에게 장군복을 지어주시여 군복에 깃든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념원과 열망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출귀몰하는 전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전투에서 지휘관들의 지략과 령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시였다. 그리고 말을 혼자 타시려는 어리신 아드님의 장수다운 기백을 보시고 말타기훈련을 시키시였다.

주체36(1947)년 9월 어느날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아드님의 말타는 모습을 보여드리시였다.

이날 다섯살밖에 안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질풍같이 말을 모시였고 말이 두발을 들고 몸부림치면서 투레질을 할 때에도 태연하게 말안장에 앉아계시였다.

아드님의 이 모습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괜찮아, 장군감이야…》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서 총도 잘 다루고 사격도 잘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이러한 교양속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벌써 총대로 나라를 튼튼히 지켜갈 결심을 굳게 간직하시였으며 백두의 총대로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갈 빨찌산의 아들로 억세게 자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적품성을 그대로 체현하신 인민의 참된 아들로 키우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기울이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을 한없이 검박하고 소박한 인민의 아들로 키우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제일수록 인민들과 꼭같이 입고 꼭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시며 아드님께 다른 아이들이 입는 수수한 보통옷을 해입히시고 양말도 기워신기시였으며 밥도 잡곡밥을 지어주시였다. 그뿐아니라 온 나라 아이들이 사탕, 과자를 마음껏 먹게 될 때 우리도 먹자고 하시며 삶은 감자와 닦은 콩을 간식으로 들게 하시였다.

어머님의 이러한 보살피심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 한번 자신을 남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시였다. 유치원과 소학교에 다니실 때에도 남들과 같이 면양말에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였고 동무들과 꼭같은 옷을 입으시고 수수한 책보를 들고다니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늘 남을 위해주고싶어하는 아드님의 천품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꽃피워주려고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면서 동무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또한 아드님에게 동지애의 참뜻을 심어주시였으며 도덕교양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언제나 인민들의 수고를 덜어줄 좋은 생각을 하도록 교양하시였다.

만민이 칭송하고 매혹되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는 김정숙어머님의 이렇듯 고결한 지성을 자양분으로 하여 오늘과 같은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백두산의 아들로 키우신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빛나는 공적이다.

새 조국건설의 위대한 전변의 나날이 흘러가고있던 주체38(1949)년 9월 22일 온 나라에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전해졌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뜻밖에도 서거하시였다는 것이였다.

슬픔에 잠긴 방송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부고가 실린 신문을 펼쳐들고서도 우리 인민들은 차마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일수 없었다. 얼마전까지도 공장구내와 들판에서, 회의장과 건설장에서, 인민군장병들과 녀성들속에서, 학교와 유치원의 어린이들속에서 김정숙어머님을 뵈웠던 우리 인민들이였다. 그 나날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에는 언제나 정력이 넘쳐흐르고있었으며 얼굴에는 밝고 다정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참으로 너무나도 뜻밖의 비보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네해밖에 못 계시고 떠나신것이 우리 인민의 가슴을 더더욱 아프게 하였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에도 오로지 수령님의 안녕과 사업에서의 성과를 바라시면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는 수령님을 바래드리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서거하시기 3시간전에 어리신 장군님을 곁에 부르시여 두손을 꼭 잡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데 대하여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이 어머님께서 아드님께 남기신 유언으로 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어리신 장군님께 하신 이 말씀은 백두광명성을 안아올리신 그날부터 장군님을 키우시며 간직해오신 기대와 념원이였으며 우리 인민모두에게 남기신 절절한 당부였다.

김정숙어머님의 서거는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해방후 처음으로 되는 가장 큰 손실이였으며 전민족적인 슬픔이였다.

9월 24일 김정숙어머님의 장례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유언대로 어버이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실 굳은 맹세를 다지시였다.

너무나 짧은 생애에 수령의 전사로서, 인간으로서 쌓으실수 있는 업적을 다 쌓으신 김정숙어머님의 한생이야말로 진정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깡그리 바친 위대한 한생이였다.

우리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밑에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중학교 제4학년용)
제 3 판

집 필 부교수 강홍수, 부교수 김명석, 부교수 리영옥, 김영숙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주 영 교 정 엄룡재
장 정 류명심 콤퓨터편성 정봉순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6(2007)년 11월 5일
3판인쇄 주체101(2012)년 3월 19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3월 29일

교－11－보－234 값 10원